나의 소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김구 기념관 재단법인 김구재단

2019 | 제62호 |

백범회보

아름다운 사람 백범을 말하다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목차-

04 **여는 글**
임시정부, 두 장의 신년 사진이 말해주는 것들…_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특집 마침표 없는 영원한 지도자, 백범의 삶과 사상

08 **'사회적 부모됨(social parenting)'을 기반으로 한 백범의 양육론**_ **김정명**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6 **청사에 길이 빛날 신흥무관학교**_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22 **독립운동의 불꽃, 조선의열단과 한인애국단**_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32 **100년이 지나도 이어지는 백범의 꿈**_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백범의 삶

40 **백범의 발자취**
여우도 죽을 때는 마음의 고향을 찾듯이[首丘初心] 명동성당 편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48 **백범의 사상**
생애에 걸쳐 선택의 기로에서 보여줬던 민족 지도자 백범의 사상
류숙희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 다중지능연구소 연구이사

52 **『백범, 거대한 슬픔』 저자 김별아 인터뷰**
"백범은 자신의 운명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힘껏 껴안은 분입니다!"_ 글 **정임경** · 사진 **장병국**

56 **백범의 재발견**
백범에게 죽음은 평생의 '벗'_ **최종등** 자유기고가

백범의 길

64 **제16회 백범문화강좌**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_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69 **제17회 백범문화강좌**
성덕대왕신종과 한국 금속공예의 우수성_ **정양모** 백범김구기념관 관장

74 **제18회 백범문화강좌**
그리스의 위기에 맞선 두 지식인 이야기_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79 **제19회 백범문화강좌**
숲으로 가는 길_ **이유미** 국립수목원 원장

제 **62**호 www.kimkoomuseum.org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통권 62호
발행인 김형오
발행처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 백범김구기념관
04311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기획 · 편집 ·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본지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우리 관 및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범의 꿈

86 **문화의 힘**
백범의 문화강국론과 세계로 뻗어가는 K팝_ **임진모** 음악평론가

94 **역사 돋보기**
영화 〈봉오동 전투〉와 뮤지컬 〈가다보면〉_ **정여울** 작가

100 **시대의 창**
수당 이남규 일가의 4대에 걸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자_ **김형목**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106 **이달의 독립운동가(9월~12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끈 위대한 영웅들_ **국가보훈처** 제공

백범의 얼

112 **기념관 문화행사**
"김구 선생님, 우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_ 글 **정임경** · 사진 **장병국**

118 **2019년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수상작**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_ **최중환** 경찰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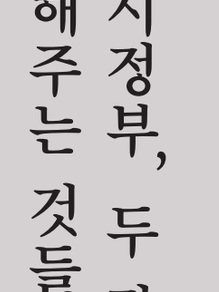
126 **의암 류인석 유적지 & 삼충단 방문기**
단풍보다 더 붉은 의혈남아들의 얼과 혼

129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130 **주요 소식**
협회 · 기념관 · 재단 소식을 한눈에!

134 **백범 십자말풀이**
십자말풀이 속 숨은 뜻을 찾아라

임시정부, 두 장의 신년 사진이 말해주는 것들…



글_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한 장 남은 달력이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첫눈이 내리고 길가에 뒹구는 낙엽 위로 발길을 옮기면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고 '감사'라는 말이 맴돕니다. 기해년(己亥年)에도 변함없이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기념관에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돌이면서 백범 선생 서거 70주년이었던 올해에는 우리 협회와 기념관에도 뜻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함께 집필한 『백범의 길, 임시정부의 중국 노정을 밟다』(상하권) 출간은 큰 의미와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나라 안팎은 그 어느 해보다도 격동기였고 격변기였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는데 광장은 아직도 엇갈린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온 겨레가 하나 되어 높이 외쳤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웠던 그 결기를 되살려 오늘 우리가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딛는 자세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백범김구사진자료집』을 넘기다가 두 장의 사진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1920년과 이듬해인 21년, 새해 첫날에 찍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신년 축하회 사진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에 임정 요인 58명은 대형 태극기 두 장을 배경으로 청사 옥상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맞는 새해에도 59명의 요인들은 태극기를 뒤에 교차시켜 두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카이젤 수염을 기르고 넥타이를 맨 백범 선생 모습이 인상적입니다(1920년-둘째 줄 맨 왼쪽, 1921년-첫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이 두 장의 사진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하고 척박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가 정장을 입고 한결같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앞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다짐과 결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환국 후에도 나라는 혼란 속에 있었지만 백범은 새해가 오면 언론에 희망과 당부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1948년과 49년 신년사에선 거듭 '단결'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920년 1월 1일
신년 축하회



1921년 1월 1일
신년 축하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니, 우리는 마땅히 신년 벽두에 과거 1년 동안의 모든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먼저 우리 민족끼리 단결합시다. 이것이 이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1948년 신년사)

"우리의 희망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성공이 아무리 확실하고, 우리의 분투노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단결이 없으면 만사는 환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과거에 성공하지 못한 단결을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새해를 '단결년'으로 맞이합시다."(1949년 신년사)

'단결'은 70년 세월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서울광장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나뉘고 갈리고 맞섰던 분열과 갈등의 날들을 접고, 희망찬 화합과 단결의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아오기를 바랍니다.

특집

마침표 없는 영원한 지도자, 백범의 삶과 사상

08 **'사회적 부모됨(social parenting)'을 기반으로 한 백범의 양육론**
김정명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6 **청사에 길이 빛날 신흥무관학교**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22 **독립운동의 불꽃, 조선의열단과 한인애국단**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32 **100년이 지나도 이어지는 백범의 꿈**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사회적 부모됨(social parenting)’을 기반으로 한 백범의 양육론

백범의 자녀 양육론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민족 광복과 통합의 사표가 되는 어른이지만,
자녀 양육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양육이라 함은 ‘아이를 보살펴서 기르는 일’을 말하는데,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양육에 관여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하물며 거의 평생을 가정을 떠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의 자녀 양육을 이야기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글을 쓰겠다고 응답했다.
그 첫째 이유는 상해에서 생이별을 하고 있던
두 아들에게 유서 대신 쓴 글인 『백범일지』 상권에서
백범의 자녀 사랑과 특별한 돌봄의 방식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둘째는 일제 강점기에 백범과 같은 독립투사들의
양육관(養育觀)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았다.
끝으로 이러한 양육관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글_ **김정명**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백범일지』에 나타난 양육의 흔적

‘양육’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백범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 떨어져 있던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며 쓴 『백범일지』 상권은 분명 아들이 성장하여 이것을 보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기록이 분명하다. 이 기록의 서두에 편지 형식으로 써내려간 유언은 마치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미래 어느 시점에 아이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다감함이 깃들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생이 아이들을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능동적이며 개별적인 주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언젠가 알아줄 것이라, 아이들의 이성적 판단을 믿는 선생의 자유와 독립의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나 다른 양육자의 의도에 의해 길러진다기보다 ‘스스로 성장한다’는 백범 철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아이를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태도다.

전자는 부모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인간상이나 직업에 도달하도록 특별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길러내는 태도를 말한다. 양육이란 말 자체도 여기서 출발한 용어다. 이 경우 아이들이란 성인과 달리 아직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방향,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들여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동물을 조련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동기부여 차원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긍정적 피드백이 자주 활용된다. 쉽게 표현하면 채찍과 당근을 통해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인간으로 아이를 주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상위하달의 모든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양육방식이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는 태도도 최근 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는 아이를 이미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고려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아이는 이미 인격체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되라(Be yourself)’고 격려하며, 다만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끈은 놓지 않는다. 하여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최소화된다. 이른바 ‘방목(放牧)’을 하는 것이다. 단지 양을 잃거나 맹수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역할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눈길 정도면 된다. 전자의 양육과정에서는 부모가 주체지만 후자의 주체는 아이들이다. 백범은 바로 이 후자의 양육관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다. 『백범일지』에는 어린 아들에게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적혀 있다. (백범학술원판)

> 너희는 아직 나이 어리고 또한 오천리 떨어진 먼 나라에서 때때로 말로 해줄 수 없는 까닭에, 장차 너희가 자라서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 할 때가 되거든 너희에게 보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동안 나의 일을 대략 기록하여서 몇몇 동지에게 남기기로 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따뜻한 대화로 한번 전했으면 그로써 만족이겠지만 세상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 중략 … 내 목숨을 어찌 믿어 너희가 자란 후 얼굴 보며 말하게 될 날을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글을 써두려는 것이다.
>
> 내가 내 경력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결코 너희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너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동서고금의 많은 위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이를 선택하여 스승으로 섬기라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아이들을 잘 기른다는 명분하에 어른의 관점과 판단을 강요하는 점이다. 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 많은 부모, 심지어 교육전문가들까지 범하는 실수며 착각이다. 이는 아이를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하기보다 보호받아야 할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은 어른 말씀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겪기 쉽고, 때로 반항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미운 일곱 살'이나 '사춘기' 즈음되면 아이의 저항이 노골화되며 부모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아이들이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순종 역시 어디까지나 아이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아이들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체벌 등을 통해 복종만을 강요하면, 아이가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변하며 태도뿐 아니라 사고까지 수동적으로 변한다. 이 경우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내재화된 체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보상에 길들여져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이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생명체다. 세상을 먼저 살아본 어른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이 위험해보이고 부족하게만 느껴질지라도 아이들이 노예적 삶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능동적 선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부모로서 이 점은 명심할 일이다.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정신은 누군가에 의해 길러지기보다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내재한 자유정신으로부터 발현된다. 백범과 같이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투사들의 양육관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범일지』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 온 백범이 배우자의 선택에서부터 자녀의 양육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주체성과 인권에 대한 존엄을 우선시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단 말이냐"

백범회보 지난 호(제 61호)에 자세히 소개되었듯이, 백범의 가족사는 한마디로 비극의 연속이었다. 부인(최준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3녀 2남 중 딸 셋이 세상을 먼저 떠났고 남아 있던 아들 가운데 큰아들 인(仁)도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부인도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낙상으로 입원했고 그 후유증으로 병사했다. 당시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는 물론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중경의 열악한 보건 환경과 전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몹시 안타까운 가족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선생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 지배에 반대하며 항일운동을 벌인 대부분의 독립투사들도 이렇게 끔찍한 가족사를 겪어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미생과 결혼해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있던 큰아들 김인(金仁)이 폐병에 걸렸을 때의 일화는 지금 읽어도 가슴 시리다. 페니실린을 좀 구해달라고 청하는 며느리에게 "여기 와 있는 동지들 중에 그 병을 앓다 죽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매정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던 백범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면 자신이나 자식 걱정이 먼저 일어나게 마련인데, 백범 선생은 어떻게 이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당시 임시정부의 마지막 귀착지였던 중경은 일제 점령지에서 탈출한 중국 관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있었다. 분지 지형에 석탄 공해가 심한 그곳에 들어와 생활하던 우리 동포 300여 명 중 약 2할은 폐병으로 사망했다고 『백범일지』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제 말, 악에 받친 일본군의 계속된 중경 폭격 또한 장남의 죽음에 대해 무덤덤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중경에서의 생활을 적은 기록 말미에 백범은 장남 죽음에 대한 소회를 남의 일처럼 담담히 전하고 있다. (『백범일지』, 도진순편)

자식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신(信)도 아버지의 곁에 있던 시간은 불과 5년이 넘지 않는다.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갓난아이 시절 3년 정도와 일제 말 할머니의 임종 후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안에 거주하면서 백범과 보낸 시간, 그리고 귀국 후 경교장에서 함께 보낸 1년 여 되는 기간이었다. 백범 선생이라고 자식을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리 만무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공적 책임을 맡고 있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식들에 대하여 만큼은 철저하게 냉정했던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돈의 시대를 겪으며, 가정을 떠나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살아 온 백범이 자식들의 양육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백범일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선생의 인생관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자식들의 운명도 하늘에 맡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관에 바탕을 두었기에 생사를 초월하는 행보를 과감하게 내딛을 수 있었고 친자식에게는 외려 객관적 태도를 보일 수 있던 것 아닐까. 이렇듯 백범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자신이나 친자식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인색한 지도자였다. 해서 입신출세하여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며 자녀들까지 훌륭하게 키워낸 어떤 지도자들보다 더욱 존경받고 온 국민이 우러러보는 위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자식들이 자신의 본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선택하여' 각기 고유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라 하겠다. 그가 만민 평등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였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요컨대 백범에게는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없었다. 해방 후 귀국하자마자 최우선으로 한 일은 먼저 간 동지 윤봉길, 이봉창, 김경득 등의 유족을 찾는 일이었다.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동지들의 자제나 조카를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맞으며 챙기는 백범의 모습 속에서 선생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이즈음 교육학에서는 이런 양육관을 '사회적 부모됨(social parenting)'에 포함시킨다. 이는 남의 아이들도 내 아이만큼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는 이타적 태도를 말하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양육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가령 선진 각국에서는 친자식이 있는데도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꽤 있으며 입양한 양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실제 입양이 이루어질 때 필수조건 중 하나로 양육환경과 양부모 될 사람의 교육적 자질이 중요시된다. 필자가 외국에 잠시 거주할 때 친자식 둘을 독립시킨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아이 넷을 입양해 친부모같이 키우며 이른바 '사회적 부모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이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여유가 전제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인격체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백범의 '사회적 부모됨'은 입양과 무관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남의 아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기본적 소양이 삶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가치관은 어린 시절 동학에 입문하면서 그 기본 교리인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 사상이나 평등정신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또한 후에 입문한 불교나 기독교 교육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 중 무엇보다 먼저 선생이 어린 시절 몸으로 겪으며 스스로 터득한 공동체 체험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백범의 어린 시절은 대가족제 중심이었다. 그 시절 마을 공동체는 일가친척을 넘어 다른 집안, 나아가 이웃마을까지를 포함하는 큰 울타리였다. 그 안에서 모든 아이들은 동네 어른의 관심 안에 머물렀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회적 부모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백범의 어린 시절 또한 동네 어른들, 나아가 이웃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렀으며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책임지는 삶의 철학을 습득했을 것이다. 이에 선생이 평등적 양육관을 갖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독립투사들의 자녀 양육관

십여 년 전부터 약 5년간 필자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봉사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독립기념관 임원진은 당연직 이사인 광복회장과 국가보훈처 담당국장,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국회의원들과 임원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되는 이사들로 구성되었다. 국회의원들과 위촉된 이사들은 대개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이사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나 기념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었다. 그 때 만난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는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친 독립투사의 손자녀도 있었고 일제 말 광복군에 참여했던 고령의 생존지사 아들도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

조국의 광복과 미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과 애국지사들의
'특별한' 양육방식을 돌아보건대, 오늘날 풍요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대로 본받아야 할 양육관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원리와 자녀 사랑방식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익으면 떨어져나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자식의 삶에 개입하며 붙잡고 있을수록 자식은 독립적으로 자라기 어렵다.

누던 중, 우리는 다른 모임에서 찾을 수 없는 미묘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움이나 독립기념관 임원이라는 직분에서 온 자부심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역경을 겪은 선조들 덕분에 나름의 귀한 멍에를 메고 있다는 공감 같은 것이었다. 또한 무언가에 잘 길들여져 살아 왔다기보다 놓아서 길러진 듯한 흔적을 갖고 있었다. 개인차가 조금 있었으나 대개 개성이 강하고 솔직담백하며 만남에 있어 숨겨진 어젠다(hidden agenda)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기질은 투사였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겠으나,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목'이란 이름의 특별한 양육방식 덕분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러한 공감대 덕분에 이사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그중 몇몇은 지금까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하여 백범 이외의 독립투사들이 가졌던 자녀 양육관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었다. 독립투사의 양육에 대한 궁금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윤봉길 의사였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백범이 이끄는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홍구공원의 거사를 성공시킨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매헌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 수암산 인근에서 넉넉지 않은 농군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보통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의 나이 12살에 있었던 3·1운동은 어린 매헌의 삶에 변화를 만든 전기가 되었다. 결국 매헌은 만세운동을 총칼로 진압한 일본에 예속되어 식민지 차별교육을 일삼는 보통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만다. 자퇴 후 신문 잡지 등을 읽으며 개벽 등의 신사상에 몰입하면서 자발적 배움을 계속했다. 이어 인근 수덕사 가는 길에 있던 오치서숙의 매곡 성주록 선생의 도움으로 사서삼경 등 유학 경전을 공부하며 나름의 학문을 닦았다. 그는 마을에서 야학과 농촌계몽운동 등을 펼치며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원인은 배우지 못함에 있다는 생각으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국을 위해 일신을 바치는 지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매헌은 15세 소년 시절, 한 살 위인 배용순과 결혼하여 2남 1녀를 둔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범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 청도까지 가서 부두노동과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달픈 교민들을 대상으로 이른 바 '노동야학'을 펼친다. 이즈음에 아내가 둘째아이를 순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미안함을 큰 아이에게 보낸 편지로 풀어냈다. 백범이 상해에서 썼던 『백범일지』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4살 된 어린 아들 종에게 보낸 유서 같은 편지였다. 나중에 성장하여 아버지를 이해해 주기 바라는 아들 향한 애틋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매헌 윤봉길 평전, 김학준 편)

종아! 재롱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아라. 네가 정말 두순에게 대하여 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좋겠다고 하였니? … 중략 … 사회·경제·정치 이것은 발생학적 순서이다. 그렇다. 현실적 통제관계에 있어서 이 순서는 전도되었다. 경제는 사회에서 나서 사회를 떠나 사회를 지배하고, 정치는 경제에서 나서 경제를 떠나 경제 위에서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인생의 변환도 그러하다. 부모의 혈계로 나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위하여 노력함이 허언이 아니다. 사실상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못되는 것은 현대 자유계의 요구하는 바이다. 종아! 너는 아비가 없음이 아니다. 너의 아비가 이상의 열매를 따기 위하여 잠시적 역행이지 하년 세월로 영구적 전진이 아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윤봉길 의사도 생이별 중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면서 백범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자율성 가진 독자적 인격체로 대하고 스스로 성장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밖에도 백범이 기독교 운동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보다 무지(無知)에서 깨어나도록 도왔듯이, 매헌도 생전에 양육 차원에서 친자식을 돌보지 못했으나 야학과 농촌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부모됨'의 활동이라 하겠다.

양육을 위한 독립투사들의 노력은 일제 강점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백범과 매헌으로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부모됨'이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교육방식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1980년대 초 호국의식을 진작시키기 위해 광복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독립정신 홍보사업은 군과 각급 학교, 연수기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들에게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지 알리는 현존 지사들의 귀한 활동이었다. 당시만 해도 광복군에 참여했던 지사들이 상당수 생존해 있어 이 분들의 체험담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민족정기를 일깨워주는 '사회적 부모됨'의 기회가 된 것이다.

"제2광복 새정신운동"은 광복 6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부터 광복회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80년대 초 독립정신홍보사업의 주축으로 활동하던 김국주 지사가 2005년 광복회장을 맡으면서 이 운동을 제창한 것이다. 광복군에 참여했던 고령의 생존지사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당시 광복회장은 "제2광복 새정신운동"의 취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2광복 새정신운동, 광복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례 없이 고도성장을 해 오면서 그 그늘에서 싹이 튼 편향된 물질주의와 집단이기주의와 가치체계의 혼돈으로 인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사회질서의 이완과 기강의 문란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난마와 같이 엉킴으로써 무엇을 풀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성장동력은 곳곳에서 정체되는 징후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광복회가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광복회 문서에 나타난 "제2광복 새정신운동"의 요지는 "민족정기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창조적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도덕과 질서를 꽃피워 21세기 지구가족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미래조국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백범이 해방 후 필사했던 『백범일지』 상·하권을 책으로 출판하면서 일지의 마지막에 붙인 "나의 소원"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지사들은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의 몸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했다. 자신들이 겪었던 생생한 체험담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 운동에는 김국주, 김우전, 권준호, 김유길, 문수열, 장호강, 황의선 등의 생존지사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역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나라의 미래와 후손을 생각하는 지사들의 우국충정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그 후 2년간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에게 광복정신과 민족적 자긍심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제2광복 새정신운동"이 우리 국민의 의식 심층부까지 깨우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자리 잡히기를 고대하던 생존지사들의 열망은, 이 운동의 제창자 김국주 광복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생존지사들이 워낙 고령인 데다가 그 운동을 뒷받침할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이들 생존지사들이 당신의 자녀 양육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조선 후기 백성의 무지, 이기적 목적의 파벌싸움, 사대주의 등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경험을 한 지사들은 독립정신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사회운동과 같이 '사회적 부모됨'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녀 양육에는 대개가 무심한 편이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어려움을 뚫고 자랐던 것처럼 아이들 스스로 잘해줄 것을 믿고 내버려둔 것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지며 살았던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었으며 독립정신과 책임의식이 후손들에게 전해져 지구촌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생존지사인 필자의 아버지도 "자식들은 밥만 먹여주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라 믿었다"며 당신의 생을 회고하셨다.

일제강점기를 살아 온 대부분 지사들 역시 자녀 양육에 관하여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물며 16세에 고향을 등지고 홀로 중국으로 떠나서 광복군에 들어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셨기에 양육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으셨던 것 같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씀을 보배같이 받들어 돈과는 결벽에 가까울 만큼 거리를 두고 사신 분이라, 넉넉지 못한 살림에 친척들까지 돌보며 오남매를 키우신 어머니를 여러모로 힘들게 하셨다. 이런 관계로 어린 시절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을 거의 느껴본 기억이 없다. 자식들이 힘든 사춘기를 겪은 것도 아버지의 무관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듯 엄격한 아버지였지만 내면의 따뜻한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강원도에서의 군복무 시절과 유학할 때였다. 집을 떠나 독립하던 과정에서 바라본 아버지는 평생을 역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딱딱한 갑옷으로 무장되셨던 분이지만 여린 마음도 지니신 분이었다. 공교롭게도 장문의 편지로 아버지와 소통하면서부터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힘든 유학생활 때 받은 아버지의 편지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답장을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읽던 아버지가 눈시울 붉히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필자를 포함하여 우리 형제들은 사춘기 때 아버지와 진로에 대하여 의논 한 번 할 기회조차 가진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방목' 덕분에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존지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육관에 대해 느끼는 필자의 체험이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과 꼭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만남에서 느낀 공감대를 보거나 80년대 초반의 독립정신 홍보사업 및 2000년대 중반 '제2광복 새정신운동'을 일으킨 광복군 출신 생존지사들의 삶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지사들의 양육관은 이즈음의 개인주의와 배치된다. 얼핏 생각할 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라면 개인과 가정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양육관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백범이나 매헌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에게서 보았듯이 어린 자식을 주체적 인격체로 대하는 모습과 사회적 부모 됨의 실현에서 부모로서의 따뜻함과 다감함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회를 위해 강요된 개인의 희생과는 다른 차원의, 자발적 희생정신과 책임의식이 내재해 있음이 분명했다.

맺는 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백범의 양육관은 '방목'과 '사회적 부모됨'으로 정리된다.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양육방식이요, 철학이다. 하지만 백범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의 이러한 자녀 양육관은 교육이론에서 나온 것과 차원이 다르다. 역경 속에서 영웅적 삶을 살다간 지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관은 오늘날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에 우리가 새겨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제 자식만 잘되면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고도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기득권을 얻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중상과 모략으로 상대를 헐뜯거나 학연, 지연, 혈연에 얽혀 안달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집단이기주의 안에 자신의 아이들을 넣지 못해 불공정 게임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도 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상처 받고 망가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무지한 이들이다. 이기적 관점에서 행해지는 부모의 부당한 개입으로 자기 아이는 물론 교육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야기된 지 이미 오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부모들이 이른바 엘리트 사회 지도층에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엘리트들은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스카이 캐슬'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이들이 백범의 자녀 양육관을 배우기에는 너무 멀리 간 느낌마저 든다. 백범 선생과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하늘에서 이런 세태를 보고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 작금의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자녀양육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이룬 독립인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오죽하면 이 땅에 몇 명 남지 않은 생존지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제2광복 새정신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이제 그 운동에 참여했던 지사들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생존지사의 회고에 잠시 귀를 기울여보자. (제2광복새정신운동, 광복회)

공작업무를 받고 진경성, 전월성 두 선배동지와 같이 부양을 떠나 장도에 오른 것은 1944년 2월 초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참으로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열들의 빛나는 정신적 전통을 이어받은 한 대한의 젊은 후예가 여기 다시 선열들이 걸으신 정의와 대의로 대로를 간다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갑자기 위대한 영웅이나 된 것으로 착각을 느끼기조차 하였습니다. … 중략 … 하루는 유격대의 호송을 받으며 밤새도록 강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격대원 중에 14~5세가량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병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키만 한 장총을 메고 또 수백발의 탄대를 양 어깨에 걸치고 걷고 있었는데 뒷모습은 마치 총이 걸어가는 듯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놀며 공부할 나이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민족이건 그 조상들이 잘못하면 그 후예들도 저 소년같이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캄캄한 대륙의 밤길을 재촉하던 그 때가 회상됩니다.

조국의 광복과 미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과 애국지사들의 '특별한' 양육방식을 돌아보건대, 오늘날 풍요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대로 본받아야 할 양육관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원리와 자녀 사랑방식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익으면 떨어져나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자식의 삶에 개입하며 붙잡고 있을수록 자식은 독립적으로 자라기 어렵다. 놓아 줄수록 자립하고 책임의식도 갖게 된다. 양육에 있어서 사랑과 관심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과잉보호는 아이의 의존성을 키우며 자립을 방해한다. 아이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가능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도록 배려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가 백범 선생께 배워야 할 양육관이 아닐까?

청사에 길이 빛날 신흥무관학교

1910년 일제가 강점한 이래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반도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았다. 언제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암울하고 무기력한 시기로 보였다. 그러나 만주 서간도에서는 강렬한 민족의식으로 똘똘 뭉쳐 쉬임 없이 군사훈련을 받으며 조국의 희망이 되고자 한 학교가 있었다.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

글_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940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과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운동의 주요 방략이었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10년 일제가 무단통치를 하면서 가혹한 탄압으로 모든 독립운동을 말살하려 할 때 일제의 손아귀를 벗어나 국외에서, 그것도 주로 만주에서 중일전쟁, 미일전쟁 등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즉각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무력을 양성하고 독립정신을 끊임없이 고취하자는 것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이었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은 을사조약 강제 체결 직후에 북간도 용정에 세워진 서전서숙부터 시작된다. 서전서숙을 세웠던 이상설은 1910년 직전부터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기 위해 이승희와 함께 재미 동포의 도움으로 러시아와 중국 국경 사이에 있는 흥개호 부근 봉밀산에 한민학교를 세웠다. 이동휘와 그의 동지들은 만주 왕청현 라자구에 무관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일제의 탄압 등으로 오래 가지 못했고 오로지 신흥무관학교만이 수많은 인재를 1911년부터 1920년까지 길러낼 수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대에 민족의 등대나 다름없었다. 신흥무관학교 무관이나 교사, 학생들은 청산리전쟁 등 독립전쟁에 참여했다.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나 아나키스트운동, 의열단 투쟁의 지도자가 되었다. 한국광복군도 총사령 등 주요 지도자들이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거나 학생이었다.

일제강점기 무장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주요 단체들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1910년 8월 일제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강점하자 그 직전에 독립운동기지 건설 장소를 찾아두었던 이회영은 자신의 형과 아우들을 설득해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 자금으로 만들어 그해 겨울 압록강을 건너 혹독한 추위가 "왜놈 못지않게 매섭다"는 서간도로 향했다. 이회영 6형제는 당대 최고 명문가의 자제였고,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석영은 손꼽히는 재력가였다. 이회영은 김형선·이장녕·이관직 등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나온 무관들과 함께 서간도에 모였다. 이회영의 동지 이동녕도 함께 했고 여준·윤기섭·김창환도 합류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북 안동의 혁신유림 이상룡 형제 일가, 김대락 일가, 김동삼 형제 일가, 황호 일가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압록강을 건너 갖가지 풍토병이 기다리는 서간도로 갔다. 조금 늦게, 처형당한 의병장 허위의 형제 등 일가도 경북 선산을 떠나 서간도로 향했다.

서간도는 산이 많고 땅이 척박했다.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은 평안도 등지에서 이주해 묵묵히 일하면서 무관학교 일을 도왔다. 이들은 계급 분화가 덜 되어 단결심이 강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6형제가 머문 유하현 추가가



신흥무관학교 옛터 유하현 합니하. 합니하는 강 이름으로 현재는 포도밭으로 바뀌었다.

의 신흥강습소에서부터 출발했다. 지역 주민들이 왜인의 앞잡이일지도 모른다고 하여 두려워하고 협조하지 않아 1911년 6월 10일 문을 열었을 때에는 옥수수 창고로도 전해지는 허술한 창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뒤 천험의 요새인 합니하에서 1912년 7월, 새 교사 낙성식을 가졌다. 1920년까지 계속되는 통하현 합니하 신흥무관학교였다. 이 학교에는 큰 병영사가 세워졌고, 각 학년별로 널찍한 강당과 교무실이 있었다. 내무반 내부에는 사무실, 숙직실, 편집실, 나팔반, 식당, 취사장, 비품실이 갖추어졌고, 복도에는 목총을 놓아두는 총가(銃架)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번듯한 무관학교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재산을 선뜻 내놓은 이석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흥무관학교는 주민들이나 국내외에서 한국인들이 불렀던 명칭이고 중국 당국에는 신흥강습소로 신고했다. 중국인이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항의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도 신흥강습소로 한 것이다. 이 학교는 중학 과정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흥중학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신흥무관학교가 장기간 인재를 키워낼 수 있었던 이유

맨 처음에 세워진 추가가 학교에는 본과와 군사학을 가르치는 특과가 있었다. 합니하에서는 중등과정은 3년이 기한이었고, 군사과는 1년이 기한이었다. 합니하 학

교에서는 무관교육에 힘썼다. 주로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들이 군사교육을 시켰으므로 기본 교육 과정이 대한제국 무관학교와 비슷했다. 술과(術科)로는 각개 훈련과 기초훈련을 했고, 체육을 중시했다. 군사시설이나 무장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 특히 도수훈련이나 체력 단련, 야간 강행군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국을 위해서는 항일투쟁, 모교를 위해서는 학·병·농 투쟁'이라는 말 그대로, 여름 내내 농사일 등 노동을 하여 학교 유지비를 마련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길고 긴 혹한의 겨울날에는 땔감을 져 날랐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민족정신과 애국심 고취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 1910년대 무단통치 하에서는 민족의식이나 애국심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록 외지라고 하더라도 서간도에서 민족의식이나 애국심을 고취시킨 것은 의의가 크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주민들에게도 크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용진가 등 독립군가도 학생과 주민 모두가 힘차게 불렀다.

이회영 6형제, 이상룡 등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사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학사는 이름 그대로 경제적인 실력을 쌓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며 근대적인 교육과 함께 무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서간도에 온 망명자들에 의해 1911년에 추가가 대고산 노천회의에서 결성되었다. 혁명 결사의 효시로도 일컬어지는 경학사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경학사의 뒷받침으로 신흥무관학교가 생기고 운영되었다.

1915년 말 1916년 초에는 서간도 주민 자치 조직으로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부민단은 10호에 십가장을, 백호쯤 되는 마을에는 백가장을, 큰 마을에는 천가장을 두었다. 부민단은 신흥무관학교 운영 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넘어오는 동포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해주는 일도 맡았다. 또 중국인과 관련 있는 사건을



1947년 10월19일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 온 신흥학우단이 신흥대학(현 경희대학교)을 설립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들이 군사교육을 시켰으므로
기본 교육 과정이 대한제국 무관학교와 비슷했다.
술과(術科)로는 각개 훈련과 기초훈련을 했고, 체육을 중시했다.
군사시설이나 무장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
특히 도수훈련이나 체력 단련, 야간 강행군에 중점을 두었다.

관장하는 등 행정 처리, 나아가서는 사법처리까지 맡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기관이었다.

신흥무관학교가 지속적으로 명성을 갖고 서간도에서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이 학교 졸업자로 조직된 신흥학우단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서간도 각지에 학교를 세웠다. 한 기록에는 20호 또는 몇 십 호만 거주해도 소학교를 세워 의무교육이나 다름없이 주민들 자녀를 가르쳤다고 쓰여 있다. 신흥학우단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적의 앞잡이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자위조직이기도 했다.

신흥학우단이 신흥무관학교와 분교, 부민단-한족회에서 견인차이자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신흥학우보》는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계몽 활동을 폈을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법 등 생업에도 유익한 교과서 역할을 했다.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간된 《신흥학우보》는 서간도 주민들의 교육 잡지로 주민자치단체와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다음해인 1915년 봄에 제2군영으로 백두산 서쪽 쏘베차에 백서농장을 세웠다. 백서농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 역시 중국 관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김동삼이 장주인 백서농장 입주자들은 4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인적 미답의 메마른 고원에서 필설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고된 군사훈련을 했다. 3·1운동 후 채찬 등 상당수가 서로군정서에 들어갔고 통의부, 참의부, 정의부에서 활약했다.

3·1운동 이후 신흥무관학교의 확장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간도 용정촌에서의 시위에 이어 3월 12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에서 만세시위 행진이 있었고 3월 19일, 20일에도, 3월 22일, 26일에도 시위가 있었다. 삼원포 고산자 일대는 분기충천한 분위기가 꽤 오래 갔다. 더욱이 만주 일대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는 무력을 양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각지에서 삼원포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부쩍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서간도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로 판단해 독립선전과 자금 모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조된 정세 하에서 주민자치단체로 부민단을 확대 개편해 한족회가 조직되었다. 한족회에서는 임시정부로 군정부를 조직했다(총재 이상룡, 부총재 여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군정부와 한족회에 대해 단독 행동을 하지 말고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좋으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대표를 파견하라고 요청했다. 군정부·한족회 측도 단결해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었다. 한족회는 상해에 임시정부를 두되 무장 독립군의 국내 진입 활동은 만주가 적합하

므로 독립군을 지휘할 군정부는 만주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1919년 11월 이 주장이 상해 임시의정원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정부는 이름을 서로군정서로 바꾸고 상해 임정 산하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서로군정서 독판은 이상룡, 부독판은 여준, 부관은 이장녕, 정무총장은 이탁이었다.

군정부와 한족회가 부닥친 큰 과제는 신흥무관학교를 확충하는 일이었다. 몰려드는 청년들을 받아들이는데 천험의 요새기는 하지만 외진 곳에 있는 합니하 학교로는 불충분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본부(본교)를 삼원포 고산자 부근의 하동 대두자로 옮기고, 합니하 학교는 분교로 하여 김창환이 교장을 맡게 되었다. 얼마 후에는 쾌대무자에도 신흥무관학교 분교를 두었다. 그 밖의 지방에서도 결사대 조직을 위해 3개월의 속성 군사훈련을 시키는 교육장이 생겨났다.

일본군 소속 한국인 장교들도 신흥무관학교로 왔다. 일본 육사 46기로 현역장교였던 지청천과 역시 일본 육사를 나온 김경천, 신팔균 등이 최신 병서를 가지고 합세해 기세를 올렸다. 지청천은 고산자 신흥무관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서간도 일대에서 독립운동이 강렬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리 없었다. 1919년 7월 마적 장강호 일당이 신흥무관학교를 습격해 교감 윤기섭 등을 납치해 갔다. 1920년 5월에는 중·일 합동수색대가 편성되어 서간도 독립운동 단체를 소멸시키려고 숱한 만행을 저질렀다. 청산리전쟁 직후 일제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경신대학살은 북간도에서도 서간도에서도 일어났다. 서간도에는 관동군 19, 20연대가 10월부터 출동해 학살극을 벌였다. 《독립신문》 1920년 12월 18일자에 따르면 삼원포에서 43명, 왕청문에서 305명, 관전현에서 495명 등 서간도 일대에서 1,323명이 학살되었다.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 교관, 생도들의 독립군 활동은 청산리전쟁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산리전쟁은 대한군정서 곧 북로군정서가 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신흥무관학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1


2


3

1 광화진 신흥무관학교 터 1차 추정지
2 광화진 신흥무관학교 터 2차 추정지
3 신흥무관학교 훈련 모습

1919년 대한군정서가 만들어질 때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장녕은 참모장으로 초빙되었다. 또 신흥무관학교 교관인 이범석과 생도인 박영희·김훈·백종렬·강화린·오상세·이운강은 각각 사관연성소 연성대장, 사관연성소 학도단장, 종군장교, 제2학도대 제3구대장, 제1중대장서리, 제4중대장, 소대장서리 등을 맡아 일본군과 싸웠고, 생도인 최해, 신형섭 등 적지 않은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이 청산리전쟁에서 일역을 맡았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육군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뿐만 아니라, 지청천이 이끈 신흥무관학교 생도와 군인으로 구성된 교성대는 청산리전쟁의 또 다른 주역인 홍범도부대 쪽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

독립군에서 신흥무관학교 생도와 관련자들의 활동은 이루 다 매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들은 서로군정서 의용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 통군부·통의부·정의부 및 참의부에도 다수가 참여했고, 조선혁명군·대한독립군·고려혁명군 등 여러 독립군 단체에서 활동했다.

특히 1940년 9월 17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소속 군으로 한국광복군이 조직되었을 때 지청천이 총사령,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던 이범석이 참모장, 이어서 제2지대장, 신흥무관학교 생도였던 김학규가 제3지대장을 맡은 것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생도였고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과 군무부장(국방장관)이었던 김원봉은 조선의용대원으로 구성된 광복군 제1지대를 통할 지휘했다.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에 끼친 자취는 1919년 2월경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9인 가운데 김동삼·여준·이동녕·이상룡·이세영·이시영·이탁·허혁 등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이 8명이나 된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상룡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뀔 때 초대 국무령으로 추대됐다. 이회영은 헤이그 특사사건에도 관여했지만, 3·1운동 직전 고종 망명을 기획했고, 아나키스트운동의 원로로 활약했다. 이동녕은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조직되었을 때 초대 의장이었고, 그 뒤 임시정부 국무총리와 국무령, 주석, 국무위원을 역임했다. 이시영 또한 임시정부의 법무총장, 재무총장과 국무위원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정부 초대 부통령이었다.

김동삼은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 의장이었으며(부의장 안창호, 윤해), 통의부 중앙집행위원장, 정의부 참모장, 만주지역 민족유일당촉진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윤기섭은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이었다. 김원봉은 의열단 단장이었고, 1930~40년대에는 민족혁명당을 이끌었다. 1919년 11월 길림성에서 의열단이 조직되었을 때 창립자 13명 가운데 김원봉 이종암 등 8명이 신흥무관학교 학생이었다.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은 도처에서 청사에 길이 빛날 활동을 했다.

어떻게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근현대사에 이처럼 거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헌신적인 지도자와 재력가, 주민들이 있었고, 이들이 단결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 또한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치겠다는 결의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운동의 불꽃, 조선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가장 치열하고 강력하게 적에 치명타를 입힌 한인애국단과 조선의열단을 소환한다. 두 단체의 투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정부와 인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글_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치열하고 감동적인 두 결사체

일제강점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 논리를 도입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은 독립운동이라면, 조선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단체는 한국을 강점하고 중국을 침략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일종의 게릴라 비밀조직이었다.

당시 일제는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대로 정규전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는 존재 없이 사라지고, 한국은 일제에 병탄되고 말았다. 따라서 병력이 있을 리 없고, 국내는 일제의 잔혹한 탄압으로 무장투쟁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결국 일신을 던져 강적의 무리를 처단하거나 수탈기관을 파괴하는 폭렬투쟁 외에 달리 수단이 없었다. 남의 나라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열단과 애국단이 조직되고, 두 단체의 눈부신 활약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는 그만큼 희망과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1920년대 의열단이 항일투쟁의 선봉이었다면 1930년대는 한인애국단이 주역이었다. 의열단의 리더는 약산 김원봉이고, 한인애국단의 주도자는 백범 김구였다. 두 지도자의 특출한 지도력은 애국청년들을 끌어 모으게 되고, 이들의 생명을 건 거사를 통해 조국해방운동을 거대한 불꽃으로 승화시켰다.

조선의열단의 창립멤버는 김원봉을 단장으로 곽재기·강세우·권준·김상윤·배동선·서상락·신철휴·윤세주·이성우·이종암·한봉근·한봉인(창립단원) 등이고, 한인애국단은 김구를 단장으로 안공근·엄항섭·김동우·안경근·송창도·백구파·김의한·김현주·김홍일·손두환·이덕주·유상근·이수봉·최흥석(초창기 단원) 등이다.

의열단은 창립 10여 년 뒤 조선의용대(군)로 이어지고, 한인애국단은 한국특무대독립군으로 발전하였다. 한인애국단과 의열단의 투쟁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이다. 두 단체가 자기희생으로 투쟁하고, 이로써 독립운동이 이어지게 되었다.

임시정부 주석이 된 김구는 1940년 9월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광복군부사령과 제1지대장이 되었다. 광복군의 모태는 조선의열단과 한인애국단에서 기원한다.

의열단, 생명을 내건 정의의 사도들

1919년 11월 9일(음력 10월 27일) 일단의 조선청년들이 중국 지린성 파허문(巴虛門) 밖 중국인 농민 반(潘)씨 집에 모였다. 이 집은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이종암이 반씨로부터 세내어 거처 겸 연락처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가끔 폭탄제조 실험도 하였다. 일종의 비밀 아지트인 셈이다.

반씨 집에 모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조선청년 13명은 밤이 새도록 토론을 거듭하였다. 11월 초순이면 지린 지방은 벌써 눈이 덮이고 강추위가 몰아치는 계절이다. 청년들은 추위 따위는 아랑곳 없이 이날 밤 의열단의 활동지침으로 공약 10조를 결정하고, 구축왜노(驅逐倭奴)·광복조국·타파계급·평균지권(平均地權)의 4개 항목을 최고의 이상으로 내걸었다.

의열단의 명칭은 김원봉의 작품이다. '정의'의 '의(義)'와 '맹렬'의 '열(烈)'을 취하여, '의열단'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날 창단식에 참석한 사람은 김원봉을 포함하여 13명이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서는 참석자 중에는 몇 사람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김원봉이 제시한 명단이다.

윤세주(尹世胄)·이성우(李成宇)·곽경(郭敬 : 일명 곽재기), 강세우(姜世宇)·이종암(李鍾岩)·한봉근(韓鳳根)·한봉인(韓鳳仁)·김상윤(金相潤)·신철휴(申喆休)·배동선(裵東宣)·서상락(徐相洛) 외 1명.

창립단원들은 형제의 의를 맺고 '공약10조'로써 조직기율을 정하였다. 김원봉이 맏형격인 '의백(義伯)'으로 선출되어 단장의 임무를 맡았다. 대표자의 명칭을 '의백'이라 하고 있음은 단원 상호간의 관계를 반(半) 혈연적 운명공동체 의식으로 묶인 일종의 형제 결연적 관계로 상정하였음을 말해준다.

초겨울 대륙의 긴 밤이 어느새 밝았다. 새날은 11월 10일, 의열단이 정식 창단되는 날이다. 회의는 밤새도록 계속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이르러, 후일 왜적들이 오직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전율하던 의열단은, 이에 완전한 결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날 채택된 '공약10조'는 다음과 같다.

공약10조

❶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❷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함.
❸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됨.
❹ 단의(團義)에 선(先)히 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
❺ 의백(義伯) 일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함.
❻ 하시하지(何時何地 :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매월 일차씩 사정을 보고함.
❼ 하시하지에서나 초회(招會)에 필응(必應) 함.
❽ 피사(被死)치 아니하여 단의에 진(盡) 함.
❾ 일(一)이 구(九)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❿ 단의에 반배(返背)한 자를 처살(處殺) 함.

의열단이 창단될 때 성문화된 단의 강령 같은 것은 달리 없었다. 1923년 단재 신채호의 손으로 「조선혁명선언(의열단선언)」이 쓰여질 때까지 일제와 친일파를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하여, 계급을 타파하며, 토지소유를 평등하게 한다는 4대 목표를 최대의 이상으로 삼았다.

'평균지권'은 의열단의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조항은 지주소작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던 조선 국내 사정을 두고 볼 때 대단히 진보적인 것이었다. 요컨대 의열단은 단순한 독립만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지향했으며 대한광복회의 진보적 노선을 한



조선의열단

7가살

❶ 조선총독 이하 고관
❷ 군부 수뇌
❸ 대만 총독
❹ 매국적
❺ 친일파 거두
❻ 적의 밀정
❼ 반민족적 토호열신
(土豪劣紳 : 악덕 지방유지)

의열단은 '7가살'과 함께 5가지의 '파괴대상'도 선정하였다.

파괴대상

❶ 조선총독부
❷ 동양척식회사
❸ 매일신보사
❹ 각 경찰서
❺ 기타 외적 중요기관

층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의열단이 채택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공포의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 즉 '7가살(七可殺)'이다.

의열단은 '7가살'과 '5파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처단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목표를 적시한 것이다. 총독 정치의 우두머리와 하수인 그리고 민족반역자 모두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또 파괴해야 할 핵심기관으로, 통치기관은 조선총독부, 수탈기관으로는 동양척식회사, 선전기관은 매일신보사, 폭압기구는 각 경찰서와 기타 중요기관을 적시하였다. 이는 의열단이 어느 독립운동 단체보다 격렬하게 일제와 싸우고자 하는 결의, 치열함과 조선민중의 소망을 담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독립운동사에 끼친 역할과 영향

의열단이 우리 독립운동사, 나아가서 민족운동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분석해 보자.

첫째, 외침 때면 어김없이 일어났던 의열·의병·승병·민병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를 실행한 우리 역사의 정맥사상(正脈思想)의 발현이다.

둘째, '강도일본'에 대해 한민족의 정의감과 용기, 불

의열단의 주요 활동

1920년 3~9월	곽재기 · 이성우 등이 국내활동에 사용할 폭탄을 밀양으로 반입하려 한 의거.
1920년 9월	밀양 폭탄 반입사건으로 구속한 데 대한 응징으로, 박재혁이 일본인 부산경찰서장을 폭상시킨 의거.
1920년 11월	최수봉(최경학)이 밀양경찰서를 폭파한 의거.
1921년 9월	김익상이 종로경찰서에 투탄한 의거.
1922년 3월	김익상 · 이종암 · 오성륜이 상하이 황포탄 부두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기이치를 저격한 의거.
1923년 3월	김시현 · 남정각 · 유석현 등이 경기도 경찰부 황옥 경부를 동원하여 무기와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의거.
1924년 1월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응징으로, 구여순 · 오세덕 등이 국내 폭동을 시도한 의거.
1925년 3월	이인홍과 이기환이 베이징에서 일제밀정 김달하를 처단한 의거.
1925년 11월	이종암 · 배중세 · 고인덕 등이 국외로부터 무기를 반입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던 '경북의열단사건'.
1926년 12월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습격한 의거.

퇴전의 투지를 보여주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두 강대한 대륙 국가를 제압한 일제가 한반도의 식민화를 가볍게 여기던 그들에게 의열단 등 각종 항일단체가 큰 타격을 주었다.

셋째, 3·1혁명 좌절 후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한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분기시켜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애국청년들이 많아졌다.

넷째, 의열단의 의거와 유사한 항일운동이 속속 일어났다. 예컨대 의열단원 박재혁이 1920년 9월 14일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를 처단한 의거 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일본 경찰관서를 습격한 사건이 91건에 이르렀다.

다섯째, 일제는 물론 여기에 기생한 조선인 관료·지주·경찰·언론·문인 등 '토착왜구'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주고 더러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조선 망국노'라고 멸시하던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경외하게 되고 지원하는 등 한중연대의 계기가 되었다.

일곱째, 의열단의 항일투쟁이 알려지면서 다물단·보합단·한인애국단·광복단 등 유사한 단체가 비슷한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직되어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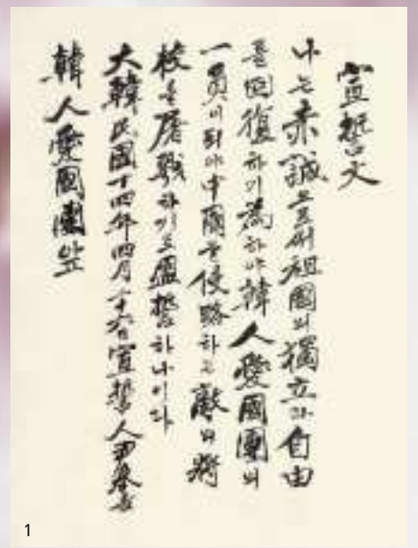
여덟째, 의열단의 주체세력이 목표와 가치를 그대로 안고 조선의용대(군)를 편성하여 무장 전쟁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김원봉 등이 이에 참여하면서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좌우통합이 이루어지고, 광복군 역시 한독당의 군대가 아닌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홉째, 독립운동 단체 일각에서 실현성이 전혀 없는 외교론과 실력양성론 등 공리공론에 빠져 있을 때 의열단의 '폭렬투쟁'이 제기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독립운동진영에 무장투쟁론이 세를 얻게 되고,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대첩으로 전개되었다.

열 번째, 남한으로 돌아온 광복군 출신 중에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일부는 반 이승만 전선에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다. 의열단 베이징 지부장이었던 김시현과 의열단원 유시태는 해방 후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1952년 6월 저격했다. 이 사건은 반이승만운동 → 반독재투쟁의 효시가 되었다.

한인애국단의 결성

일본은 1927년 4월 육군대장 다나까가 집권하면서


宣誓文

吾等은 赤誠으로써 祖國의 獨立과 自由를 回復하기 爲하야 韓人愛國團의 一員이 되야 中國을 侵略하는 敵을 殲滅하기로 血盟하나이다.

大韓民國十四年四月 日 宣誓人 尹奉吉

韓人愛國團 앞

1


宣誓文

吾等은 赤誠으로써 祖國의 獨立과 自由를 回復하기 爲하야 韓人愛國團의 一員이 되야 敵國의 首魁를 殲滅하기로 血盟하나이다.

大韓民國十三年十二月 日 宣誓人 李奉昌

韓人愛國團 앞

2

1 한인애국단 윤봉길 선서문
2 한인애국단 이봉창 선서문

본격적인 대륙침략 정책으로 나왔다. 일본은 대공황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어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가중되면서 대륙침략 전쟁을 도발하여 국내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 일제는 일찍부터 만주를 그들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었다. 만주를 확보하면, 소련의 남하정책을 그곳에서 저지하게 되면서, 석탄·식량 등 군수산업의 안전한 원료공급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한국독립운동의 전진기지를 초토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일제는 만주지역의 한국독립운동을 토멸하고자 1920년 훈춘사건을 조작하여 한인을 대량학살하고, 1925년에는 만주당국을 위협하여 이른바 삼시협정(三矢協定)을 맺게 하여 중국 당국이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1931년에는 만보산사건을 일으켜 한국인과 중국농민이 싸우도록 조작하여 한·중 국민간의 이간을 통해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게 하는 한편 만주침략의 구실로 삼았다.

일제는 마침내 1931년 9월 18일 봉천 교외의 만선철로의 일부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 측에 책임을 떠넘겨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길림·봉천에 이어 하얼빈·찌찌하르·금주까지 함락하고 이듬해 3월에는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만주일대가 일본군에 점령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한국독립운동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일제의 회유정책으로 일부 독립운동가가 투항하거나 만주를 떠났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축과 함께 독립운동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특무공작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일제에 타격을 주기로 하였다. 욱일승천하는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적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특무공작 외에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특무공작이었다.

한 몸을 던져 적괴를 사살하거나 적의 기관을 폭파시키는 행동이 임시정부에서 직접 실행되면 정부의 위신과 외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과는 별도로 특무대를 조직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 이를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게 되면 정보누설과 자칫 방법론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에 부딪치게 될 우려에서 특무공작에 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을 김구에게 위임하였다.

그 때 김구는 국무위원(재무장)이며 상해거류민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자금조달, 인물선정, 공격대상의 결정 등 전권을 위임받은 김구는 우선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비밀리에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김구는 일찍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였지만 병력이나 양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노병회 조직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 11월에 결성되었다. 비밀결사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인원과 단원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또 임무상 단원 중에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여 실명의 확인도 쉽지 않았다. 일제정보기관은 한인애국단의 인원을 약 80명으로 추정했으며, 그 핵심단원으로 10여 명을 들었다.

임시정부 국무원이 여러 차례의 회의결과 특무대를 조직하기로 하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맡기기로 한 데 대해 김구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급기야 상해에서는 이따금 대로상에서 중·한 노동자들의 충돌이 빚어졌다. 그 때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특권을 부여받아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나는 첫 번째로 동경사건을 주관했던 것이다. 암살 파괴 등의 공작을 실행하되 자금과 사람의 사용에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여 성공 또는 실패의 결과만 보고하면 되었다. 그래서 1월 8일이 임박했으므로 국무위원에 한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였다.(『백범일지』)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1932년 5개월 동안 큰 네 가지의 의거로 나타났다. 1월 이봉창의 도쿄 일왕 투탄 의거, 3월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파견된 유진식·이덕주 의거, 4월 윤봉길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 5월 관동군사령관 암살을 위해 대련으로 파견되었다가 피체된 최응식·유상근 의거 등이다.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1932년 5개월 동안 큰 네 가지의 의거로 나타났다. 1월 이봉창의 동경 일왕 투탄 의거, 3월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파견된 유진식·이덕주 의거, 4월 윤봉길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 5월 관동군사령관 암살을 위해 대련으로 파견되었다가 피체된 최응식·유상근 의거 등이다.

일왕 마차에 폭탄 던진 이봉창

한인애국단원 이봉창(李奉昌)은 1932년 1월 8일 오전 11시 44분경, 일왕 히로히토가 만주국 괴뢰황제 부의(溥儀)와 동경 요요기[代代木]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거행하고 경시청 앞을 지날 때 수류탄을 던졌다.

이봉창은 일왕이 두 번째 마차에 탔을 것으로 짐작하고 폭탄을 던졌으나 일왕은 폭사하지 않았다. 수류탄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국치 22년 만에 한국병탄의 수괴인 일왕을 적의 수도 왕궁 근처에서 폭살하고자 한 대담한 의거는 비록 실







3 동경 경시청에 연행되어 조사실로 끌려가는 이봉창 의사
4 이봉창 의사가 용수를 쓴 채 일본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
5 한인애국단원들과(1932)

패하기는 했으나 한민족으로서는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국내는 물론 만주·중국·러시아에서 각종 의열투쟁이 전개되어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적도 한복판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은 이봉창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1923년 박열이 일왕 부자를 폭살시키려는 거사를 일본에서 준비하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봉창의 의거는 비록 적중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본인은 일제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순국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는 더욱 악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불행부중(不幸不中)' 즉 "불행히 적중시키지 못하였다"라는 중국의 신문보도를 트집 잡아 일제가 상해를 침공했으며, 같은 한인애국단원인 윤봉길에 의해 일왕 생일 및 상해 전승기념 축하회장에서 폭탄세례를 받아야 했다.

일본 메이지[明治] 헌법 제1조에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고 하고, 제3조에는 "천황은 신성으로 침범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일왕과 그 일족에 대한 위해는 대역죄인, 국사범으로 몰아 처형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형사범죄가 3심제도인데 비해 대역죄는 대심원의 단심으로 형을 확정하였다.

이봉창은 일본으로 압송되고 동경 풍다마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9월 16일 대심원 제2특별 형사부 법정에서 공판이 열리고 9월 30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이봉창 의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당당하였다. 일제는 사형선고를 한 이봉창 의사를 10월 10일 시곡형무소로 이감하여 당일 오전 9시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봉창 의사는 32세의 짧은 삶을 조국광복에 바쳤다. 유해는 도쿄 서북쪽 기옥현 포화형무소 묘지에 묻혔다가 해방 후 환국한 김구 주석에 의해 용산 효창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일본수뇌 폭살한 윤봉길

1932년 4월 29일, 25세의 조선 청년이 상하이 홍구공원(현 루쉰공원)에서 열린 일제의 이른바 천장절 겸 전승 축하 기념식에 폭탄을 던졌다.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 일본 고위장성 등 여럿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의거의 주인공은 바로 윤봉길이다. 이 사건은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국민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고, 특히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개석 총통이 "5억 중국 인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칭송할 정도였다.

윤봉길의 의거가 없었다면 중국 내의 우리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봉길은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끈 선구자이다.

윤봉길이 국내에서 농촌계몽 활동을 접고 망명길에 오른 것은 1930년 3월, 그의 나이 23세 때이다. 길을 떠나면서 "대장부가 집을 떠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윤봉길은 평안도 선천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한 달 가량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국경을 넘었다. 만주 일대를 헤매다가 대련을 거쳐 청도에 머물면서 이듬해 상반기까지 우리 동포가 경영하는 세탁소의 경리로 일하면서 중국의 정세를 살폈다.

윤봉길이 상해에 도착한 것은 1931년 5월 8일이다. 도착 즉시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을 찾아 그의 집 3층에 숙소를 정하고, 생계를 위해서 동포가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한인공우 친목회'를 조직했다. 노동쟁의를 도모하고 일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1932년 그의 나이 25세가 되었다. 상해에 도착한 이래 틈틈이 도시의 거리를 익히고 각종 정보를 취득한 다음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상해지역 한인 교포단장인 김구를 찾아가 자신의 의지를 알렸다.

김구는 윤봉길을 만나 그의 인품과 애국심을 알아보고 "노소의 차이가 있을 뿐 민족혁명 대업을 위한 다시 없는 큰 동지를 얻었다"며 그를 한인애국단에 가입시켰다.

중국 신문에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과 일본군의 상해 점령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홍구공원에서 열린다는 기사가 실렸다. 윤봉길은 하늘이 준 기회로 생각하면서, 다시 임시정부로 김구를 찾아가 거사 계획을 밝혔다. 김구는 비밀 조직 참모격인 김홍일에게 물통과 도시락 모양의 성능 좋은 폭탄 제조를 지시했다. 일제는 모든 행사장에 참석하는 일본인에게 반드시 물통과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기 때문이다. 동경에서 이봉창이 일왕이 탄 마차에 던진 폭탄의 성능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일왕을 죽이지 못한 것을 개탄한 김구와 김홍일은 상해 중국군 비밀 공병창에서 성능이 뛰어난 폭탄을 만들어 성능실험까지 마쳤다.

마침내 운명의 날 4월 29일이 밝았다. 윤봉길은 '최후의 만찬'이 아닌 '최후의 아침'을 김구와 함께 하고, 김구가 차고 있던 낡은 시계와 자신의 새 시계를 바꿔 찼다. 자기의 시계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오전 11시 50분(한국시간 12시 40분경), 일본군의 천장절과 전승 축하행사가 끝나갈 무렵, 윤봉길은 연단 중앙을 향해 폭탄을 힘차게 던졌다. 순간, 폭음이 터지

이봉창 의거는 일본제국의 수도 동경에서
한인애국단 단원이 일본제국의 상징 '일본천황'을 특공함으로써
명중 여부와 관련 없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한국 독립운동을 크게 고양시켰으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내각 총사퇴와 위상 추락 등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고 참석한 일본의 요인들이 추풍낙엽처럼 거꾸러졌다. 시라카와 대장, 카와바타 상해 거류 일본인 민단장은 폭사하고, 노무라·우에타 중장, 시게미쓰 주 상해 공사, 무라이 상하이 총영사 등이 중상을 입었다. 폭탄이 적중한 것을 확인한 윤봉길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순간, 일제 군경에게 붙잡혔다.

5월 25일, 상해 파견 일본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윤봉길은 11월 18일 삼엄한 경비 속에 일본으로 호송되어 12월 19일 아침 7시 40분 가나자와 교외 미고우시 공병 작업장에서 일본군의 총살형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해방 후 윤 의사의 유해는 환국한 김구의 지시를 받은 박열·이강훈이 주선하여 1946년 6월 30일 고국으로 돌아와 용산의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짧은 생애지만 보통 사람의 100년보다 훨씬 값진 생애였다. 윤 의사의 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한인애국단의 역사적 평가

김구가 주도한 한인애국단 활동의 역사적 의의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일제의 '만보산사건' 조작으로 붕괴된 한국과 중국 양 민족의 연대를 다시 회복하여 강화하고, 중국 영토 안에서 한국민족 독립운동을 다시 가능케 하는 여건을 회복하여 주었다. 중국은 9·18 사변으로 상해를 일본침략군에게 점령당하자 치욕과 울분에 떨다가 백범이 지휘하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의 동경의거, 윤봉길의 상해의거, 최흥식·유상근의 대련의거 등에 환호하였다.

특히 중국은 제19군단과 제5군 및 의용군 등 30만 명을 투입하여 일본침략군에 대항하여 1개월 동안 치열한 항전을 벌이고도 상해를 점령당하였다. 이에 전 중국인이 통분하여 발을 구르다가 한인애국단이 윤봉길 의거로 상해점령군 일본군 총사령부의 이동체인 총사령관 이하 군·정 수뇌 7명을 모두 섬멸해 버리자 일제히 환호했으며, 한국인에게 무한히 감사하였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침략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이봉창 의거는 일본제국의 수도 동경에서 한인애국단 단원이 일본제국의 상징 '일본천황'을 특공함으로써 명중 여부와 관련 없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한국 독립운동을 크게 고양시켰으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내각 총사퇴와 위상 추락 등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또한 윤봉길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는 중국군 30만 명의 치열하고 완강한 저항도 물리치고 상해를 무력 점령하여 승리에 기고만장한 일본군 총사령부 수뇌를 섬멸해 버린 특공작전이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속에서





6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중 순국한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7 국제연맹조사단이 대련(大連)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련에서 잠복하던 중 발각되어 사형당한 한인애국단원 최흥식

천장절 겸 상해점령 승전경축식을 최대 규모로 거행하여 일본의 위세를 전 세계에 과시하려 한 일본침략군의 총사령관 이하 군·정 수뇌 7명을 한인애국단원 윤봉길 한 명이 특공작전으로 일거에 섬멸해 버렸으니, 일본침략군과 일제가 받은 실질적 타격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침체에서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과 커다란 성과에 놀라고 고무된 다수의 국내외 동포와 단체가 임시정부의 중요성과 그 독립운동의 성과를 재인식하여 임시정부에 재정지원 등 각종지원을 재개하고 확대하여 임시정부는 다시 활성화되었다.

넷째,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한국민족의 독립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독립사상을 크게 고취하였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국민족의 국내외 독립운동을 크게 고무하여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상상하기 힘든 '일본천황' 특공, 일본군총사령부 특공, 조선총독 특공, 상해 파견 일본군 총사령관 이하 군·정 수뇌 섬멸, 일본 관동군사령관 특공 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담한 작전을 연속 감행하였다.

이봉창 동경 의거와 윤봉길 상해 의거의 큰 성공으로 일제의 1931년 9·18 만주침략 후 더욱 강화된 탄압 속에서 한국민족이 얼마나 큰 격려와 고무를 받았을 것인가는 상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다섯째, 일본의 수도 동경, 국제도시 상해, 국제연맹조사단이 도착하는 대련 등 일본 측의 동태를 전 세계가 주시하는 시기의 국제도시에서 감행되어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 한국민족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백범과 임시정부는 한국민족 독립운동의 완강하고 격렬한 또한 용맹스러움을 전 세계에 인상 깊게 알리는 데 성공하였다. (신용하, 「한인애국단 활동의 역사적 의의」)

김구는 1932년 당시의 한인애국단 특공작전을 '폭렬행동(爆裂行動)'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내가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사업에 헌신한 지 어언 40년에 하루라도 폭렬행동을 잊은 적이 없다. 물론 이러한 행동으로만 우리의 혁명사업이 성공되리라고 생각하는 바는 아니지만, 참담한 사선(死線)에 처한 우리로서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것은 이 길 이외에 제이 방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방면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동안 실패함도 적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성공함이 오히려 많았다.** - 『백범일지』

100년이 지나도 이어지는 백범의 꿈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방송에 담긴 100년의 꿈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저마다 이를 기념하는 특집방송들을 방영했다. 100년 전 백범이 이끌던 임시정부가 꾸던 꿈은 무엇이었고, 그 꿈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특집방송에 담긴 100년의 꿈을 들여다보자.

글_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1



2

1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김형석 작곡가가 진행했던 'One K 글로벌 프로젝트'
2 SBS '한반도의 꿈'에서 '원 드림 원 코리아'를 부르는 가수들의 무대

'한반도의 꿈', 지금도 여전한 하나 된 나라에 대한 꿈

SBS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꿈〉은 2018년 남북정상이 만났던 그 감격스런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꼭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분단의 장벽이 사라지는 기적 속에서 이를 바라보던 내외신 기자들은 박수를 터트렸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환송행사에 쓰였던 '원 드림 원 코리아'를 작곡한 김형석 작곡가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이른바 'One K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 노래를 작곡한 김형석 작곡가는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로 시작하는 노래가 흐르며 남북 정상이 손을 잡는 장면이 겹쳐질 때 숨이 턱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꿈〉은 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방송에 통일의 염원을 담은 'One K 글로벌 프로젝트'를 소개했을까. 그건 임시정부가 100년 전 꿈꿨던 진정한 독립의 의미에 '하나 된 나라'에 대한 염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00년 전의 꿈은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다큐멘터리는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그 꿈이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염원이라는 걸 다큐멘터리는 '원 드림 원 코리아'라는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리는 과정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재일교포 4세 강하나와 그 가족의 이야기였다.

강하나는 우리에게는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소재로 해 큰 화제가 됐던 〈귀향〉에 출연하기도 했던 배우로 같은 작품에 그 어머니인 재일교포 3세 김민수도 출연했다. 강하나와 김민수 그리고 강하나의 아버지인 강강범과 동생인 강소원은 일본 오사카에서 거주하는 재일교포. 두 딸들의 이름에는 '하나된 조국을 소원한다'는 뜻이 담겼다. 차별이 심한 일본에서 여전히 저고리를 교복으로 입고 조선인 학교를 다니는 소원이와, 보험도 되지 않는 동포들을 위해 지어진 병원에서 박봉을 감수하며 일하는 강강범, 그리고 재일 동포들의 차별받는 삶을 연극에 담아 공연하는 김민수와 강하나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안타까운 건 일본에서 나고 자란 가족의 국적이 나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머니 김민수는 한국 국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아버지 강강범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매 중 하나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소원이는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국적이 다르게 된 것이다. 가족의 고향은 모두 제주지만 이렇게 국적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남이냐 북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현 분단 상황 때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와 소원이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두 개의 분단된 남북을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제주도로 돌아간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소원이가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는 '원 드림 원 코리아'를 배경음악으로 들려주며 오랜 만에 소원이네 가족이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와 보내게 되는 즐거운 시간을 담아낸다. 그 장면은 마치 남북이 하나 된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광경의 꿈을 그려낸다.

〈한반도의 꿈〉은 강하나네 가족은 물론이고 이 'One K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한 최북단 마을 대성동 마을 아이들과 민통선 동해북부선 옛 철길을 찾은 실향민 2세이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장공순씨, 민통선 끝을 찾아 절을 올리는 고성군 명파리에서 온 실향민 김영수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들이 모두 참석한 2019 One K 콘서트의 무대로 끝을 맺는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캠페인과 노래 그리고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준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원 드림 원 코리아'라는 노래로 귀결된다. 〈한반도의 꿈〉은 그렇게 하나의 노래에 담아낸 여러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을 보여준다. 그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꿨던 꿈이기도 하다. 독립된 나라와 하나 된 나라.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소망은 한결같다는 걸 이 다큐멘터리는 말해주고 있다.

기억하여 기록한다, '기억.록'

MBC가 100부작 특집으로 방영하고 있는 〈기억.록〉은 내용적인 면에서나 형식적인 면에서나 완성도가 높

은 다큐멘터리다. 그 취지는 기억과 기록을 붙여 만든 제목에 이미 담겨 있다. 결국 역사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 다큐멘터리는 주창하면서, 그 형식적 틀로 2분에서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을 선택했다. 바로 이 짧은 러닝타임은 그러나 매 회 실험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특히 근현대사 100년을 대표하는 100인의 인물을 소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셀러브리티 100인이 각각의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작업을 해내고 있다. 김연아가 소개하는 유관순, 신혜선이 소개하는 김향화, 신하균이 소개하는 김원봉 같은 방식이다.

특히 〈기억.록〉이 주목되는 건 그간 독립운동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외된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전면에 끌어냈다는 점이다. 0회로 김연아가 처음 소개하는 인물이 '무명(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점은 그래서 뭉클한 면이 있다. 또 1, 2회로 유관순을 3회로 김향화, 5회에 남자현을 다룬 것처럼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전면에 내세운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만큼 독립운동사에 주로 뒤편에 놓여있던 인물들을 더더욱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서는 읽혀진다.

그런 점에서 3회 '김향화'편은 〈기억.록〉이 담으려한 의미가 도드라지는 영상이다. 김향화는 1919년 3월 수원에서 기생들을 이끌고 경찰서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인물.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된 그녀들의 행진'이라는 자막이 적힌 장면 속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마치 춤을 추듯 길거리로 나선 기생들의 모습에 셀러브리티로 참여한 신혜선은 "당차다"는 표현을 썼다. 물론 화도 나고 두렵기도 했겠지만 자신이라면 과연 김향화처럼 일본 순사 앞에 나서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신혜선은 자문한다. 당시 수원과 안성, 해주, 통영 등에서 기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이 있었지만, 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대의 통념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준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재조명하려는 〈기억.록〉의 영상은 더더욱 가치 있게 느껴진다. 그것은 소외된 이들의 독립운동이면서 동시에 당대의 사회가 가진 통념에 대한 저항까지 기록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기억.록〉은 실험적인 형식을 성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됐던 건 14회에 방영됐던 모델 한현민이 참여한 심훈편이다. 심훈이 남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구를 통해 3·1운동에 참여했다 경찰에 검거된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취조기록을 담아내며 한현민은 그 무명의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노인에서부터 상인, 조선인 순사 그리고 심훈으로까지 재연해 보여준다. 모델답게 여러 의상들과 동작만으로도 그들의 면면들을 잡아내는 한현민의 모습과 함께 감동적인 이들의 취조기록들이 하나씩 자막으로 열거된다. 왜 만세를 외쳤냐는 취조에 53세 농민 김희룡씨는 "일본의 주권에서 탈퇴하고 조선만의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라고 했고, 조선총독부 순사 정호석씨는 "삶에 쪼들리고 있는 2천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또 천도교 도사 권동진씨는 "씨를 뿌려 두면 반드시 그 결과로 독립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조선의 독립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이런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뤄진 거라는 것. 바로 이 함께 해냈다는 가치는 특히 다문화가정 2세인 한현민이라는 모델의 참여로, 지금 현재에도 그 울림을 전한다. 이제 다문화,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서 타자로 여기던 이들을 우리네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함께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갈 것인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다.

백범 김구 선생 편은 영화 〈대장 김창수〉로 김구 역할을 연기했던 조진웅이 참여했다. 백범 김구가 이끌고 버텨내는 임시정부 자체가 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많은 의사들 앞에서 눈물 흘렸던 김구의 인간적인 면모 또한 조진웅은 소개했다. 무엇보다 하나 된 나라를 꿈꾸다 안두희에게 암살된 백범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안두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년 만에 나와 군납업자로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에는 조진웅의 감정이 실렸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지점이다.

이처럼 〈기억.록〉은 짧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서 기록해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현재와 과거를 잇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기억.록〉은 이처럼 영상으로 써낸 작은 역사로서 한 편 한 편이 흥미진진하면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기록의 가치를 더해준 다큐멘터리다.







3, 4 MBC '기억.록'에서 조진웅이 참여한 백범 김구 편
5 MBC '기억.록'에서 신혜선이 참여한 김향화 편

'독립투사 연미당', 백범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여성 독립투사

지난해 국가보훈처는 여성 독립운동투사인 연미당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남성들이 먼저 떠오르거나, 전면에 나서 싸운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연미당은 여성으로서 또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었다. KBS 〈독립투사 연미당〉은 역사 스토리텔러인 설민석이 독립운동가의 딸이자, 아내, 어머니로서 살면서 그 자신 역시 독립운동에 앞장선 여성 독립투사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과정을 담아낸 인물 다큐멘터리다.

연미당의 독립운동은 그 남다른 가족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 연병환은 1907년 정미7조약이 강제되자 공직에서 사퇴했고, 1908년 청주 군수로 발령받았지만 고사하고 중국 용정으로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남다른 언어실력으로 중국에서 세관공무원 일을 하며 독립운동을 후원했고 또 조선의 뜻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해온 연병환을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던 백범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여겼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연미당은 백범의 또 다른 조력자였던 엄항섭과 결혼해 함께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

〈독립투사 연미당〉은 그래서 연미당의 삶과 함께 그에게 영향을 끼친 아버지 연병환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 백범이 이끌던 임시정부를 도왔던 남편 엄항섭의 이야기까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 '조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부제가 달린 건 그래서 연미당만이 아닌 임시정부를 지키고 버텨냈던 요인들의 마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하이부터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까지 8천km의 대장정을 이어갔던 그들에게 '조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가를 그 부제는 말해준다. 또한 그것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아 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도 하다. 임시정부의 존재 근거 자체가 '조선독립'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그 멀고도 먼 대장정을 하면서까지 백범을 비롯한 요인들의 끈질긴 생존기가 이어졌던 것이니 말이다.

다큐멘터리는 도시락을 싸는 보자기를 만드는 연미당의 모습을 통해 그가 여성 독립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드러낸다. 보자기에 줄이 나와야 한다는 남편 엄항섭의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 폭탄을 싼 보자기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보자기에 작은 구멍을 내주는 연미당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뒤편에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설민석은 연미당의 그런 특별한 독립운동을 설명하며 그의 내조가 없었다면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고 묻는다.

"결국 독립은 어떤 한 영웅의 힘이 아니라 뒤에서 혹은 주변에서 묵묵히 도왔던 수많은 민초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말은 독립투사로서 연미당이 왜 중요한가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독립운동에 있어 뒤편에 물러나 있어 조명되지 않았던 숨은 조력자들의 가치를 되새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설민석의 해설과 중간 중간 드라마타이즈된 재연으로 생생하게 그려지는 연미당의 삶의 궤적은 고스란히 임시정부가 걸어간 길을 담아낸다. 결국 대장정은 일제의 패망으로 끝이 나고 임시정부는 드디어 조국에 자리를 잡게 되지만, 하나 된 나라를 꿈꾸던 백범은 암살당하고 만다.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된 경교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총격의 흔적과, 서거한 백범을 위해 엄항섭이 눈물로 쓴 추모사가 묵직한 아픔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백범 김구의 1946년 8월15일의 연설 한 대목이 흘러나온다.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이라도 우리 앞길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조상의 나라를 위해 조금도 아끼지 말고 우리 몸에 있는 피 근량대로 전부를 다 쏟아 바쳐야 합니다." 그 말은 연미당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반추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도시락을 싸는
보자기를 만드는 연미당의 모습을 통해
그가 여성 독립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드러낸다.
보자기에 줄이 나와야 한다는
남편 엄항섭의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 폭탄을 싼
보자기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양한 아리랑의 향연, '내가 사랑한 아리랑'

아리랑이 이렇게 다채롭고, 또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었던가. 아마도 KBS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꾸민 특집 공연 〈내가 사랑한 아리랑〉을 본 시청자들은 적이 놀랐을 것이다. 이 공연이 특별했던 건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아리랑'을 여러 가수들과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여러 색깔로 변주해냈다는 점이다. 그것은 노래의 변주이기도 하지만,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그 시기부터 고난과 희망의 역사를 그려왔던 근현대사까지 그 고단한 삶을 담은 역사적 무대이기도 했다.



여성 독립운동투사 연미당을 재조명한 KBS 다큐멘터리 '독립투사 연미당'

수십 대의 북소리로 '100년의 울림'이라는 웅장한 무대의 막을 연 〈내가 사랑한 아리랑〉은 '저항의 아리랑', '도전의 아리랑', '희망의 아리랑'으로 나뉘어 색깔이 다른 아리랑의 무대들을 선보였다. 정가단아리와 스칼라합창단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와 스칼라합창단의 '광복군 아리랑' 그리고 국악인 남상일이 부른 안중근이 직접 작사 작곡한 '옥중가'가 '저항의 아리랑' 무대로서 아리랑 본연의 구슬프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전해주었다면, 국악인 안숙선과 크로스오버 사중창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나 운암 김성숙 선생의 손자인 피아니스트 두닝우가 직접 편곡한 '아리랑 판타지' 연주 등으로 채워진 '도전의 아리랑'은 아리랑이 다양한 장르와 더해지며 크로스오버 되는 무대를 선보였다.

〈내가 사랑한 아리랑〉에서 백미는 2부에서 보여준 '희망의 아리랑'이었다. 보통 아리랑이라고 하면 한의 정서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 '희망의 아리랑'에서는 흥겨운 아리랑의 한 마당을 선보였다. 한영애가 부르는 '코뿔소'는 아리랑은 아니지만 넘어지지 않고 나간다는 그 의미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아리랑에 담긴 희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악단광칠의 신명나는 '어차피 아리랑'과, 이희문, 노선택과 소울소스, 놈놈, 치타가 함께 한 '아리랑 막 놀아난다'는 아리랑이 힙합과도 어우러지는 놀라운 퓨전의 맛을 선사했다. 어딘지 옛 노래로만 여겨져 온 아리랑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나아가 외국인들의 어깨까지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다.



6



7



8


9

6 KBS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꾸민 특집 공연 '내가 사랑한 아리랑'
7 KBS '내가 사랑한 아리랑'에서 '님은 먼 곳에'를 함께 부르는 장사익과 효린
8 MBC '선을 넘는 녀석들' 철원 DMZ 편 9 SBS '좋은아침'이 특별기획한 '100년 만에 찾아온 영웅들의 한 끼'

이밖에도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들은 꽤 많았다. MBC 〈선을 넘는 녀석들〉은 설민석을 중심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는 탐사 예능프로그램으로 첫 회부터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다뤘고, SBS 〈일요특선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하라 독립자금 루트'편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종손인 배우 윤주빈씨와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인 김용만씨가 출연해 임시 정부의 독립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독립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 보는 내용을 다뤘다. SBS 〈좋은아침〉에서 특별기획한 '100년 만에 찾아온 영웅들의 한 끼'는 국내외로 힘겨운 피난을 이어갔던 독립투사들이 당시 먹었던 한 끼에 깃든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겼고, 연합뉴스TV에서 방영한 '박기서 김구를 말한다'는 김구 선생님의 암살범 안두희를 단죄한 의인 박기서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은 당시의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전해주면서 동시에 하나 된 나라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100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던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백범의 꿈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독립된 나라와 하나 된 나라의 꿈이 바로 그것이다.

백범의 삶

40 **백범의 발자취**
여우도 죽을 때는 마음의 고향을 찾듯이[首丘初心] 명동성당 편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48 **백범의 사상**
생애에 걸쳐 선택의 기로에서 보여줬던 민족 지도자 백범의 사상
류숙희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 다중지능연구소 연구이사

52 **『백범, 거대한 슬픔』 저자 김별아 인터뷰**
"백범은 자신의 운명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힘껏 껴안은 분입니다!"
글 **정임경** · 사진 **장병국**

56 **백범의 재발견**
백범에게 죽음은 평생의 '벗'
최종등 자유기고가

여우도 죽을 때는 마음의 고향을 찾듯이[首丘初心]

명동성당 편

김구의 파란만장했던 종교의 순례는 명동성당에서 끝난다.
유교 · 불교 · 동학 · 기독교 · 천주교에 모두 몸을 담은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안태훈 진사와 그의 아들 안중근(토마스), 아내 최준례(줄리아), 며느리이자 비서였던 안미생(수산나), 그리고 그의 주치의이자 마지막 종부성사에서 대세를 준 가톨릭병원장 박병래 박사(요셉)가 모두 천주교인이었던 인연을 그는 저버리지 못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글_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인연(因緣)

서러움이 깊으면 기도가 절절하다던가? 다른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국한하여 본다면 기이하게도 황해도의 기도 소리가 높다. 당시 천주교 제8대 조선교구장 뮈텔(Gustave C. Mutel) 주교가 교황청에 보낸 '190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에서 천주교의 신심이 가장 깊은 곳은 황해도였다. 우리의 역사에서 기독교를 앞세운 서구 문명이 최초로 상륙한 곳은 인천이나 부산이 아닌 백령도(白翎島)와 옹진반도였다. 1816년에 서양인 최초로 조선을 탐사한 영국 함장 홀(Basil Hall)이 찾아온 곳도 연평도 근해였다.

황해도 주민들은 교육열이 높고 적극적이며 우국적 기상도 높아 투쟁 방법도 격렬했는데 3·1운동 당시에 5명이 현장에서 사살된 수안(遂安)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예증이다. 거기에 서북 차별이라는 요인이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승만(李承晩)·박은식(朴殷植)·김구·안중근(安重根)·노백린(盧伯麟)·편강렬(片康烈)이 이곳 출신이었고, 이른바 105인 사건의 진원지도 황해도였다. 임시정부의 수반(대통령·국무령·주석) 일곱 분(이승만·박은식·이상룡·이동녕·홍진·양기탁·김구) 가운데 이승만·박은식·김구 세 분이 황해도 출신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피카소(Pablo Picasso)가 그린 '한국전쟁의 학살'도 바로 황해도 신천(信川)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황해도 천주교의 중심에는 프랑스외방전교회 출신 독일인 신부 빌렘(Nicolas J. M. Wilhelm, 洪錫九)이 있었다. 본디 프랑스 사람이었으나 고향 알자스-로렌이 독일에 병합됨으로써 국적도 바뀐 기구한 신부였다. 1895년에 조선교구 신부로 발령을 받은 그는 황해도 신천과 해주 일대에서 포교를 했다. 안중근이 순국하기 전날 종부성사(終傅聖事)를 준 신부가 바로 빌렘이다.

그 무렵 김구는 1906년 31세의 나이에 신천 사평동(謝平洞) 예수교회에서 최준례(崔遵禮)를 만나 결혼했다. 광복군 선전과장 조일문(趙一文 : 전 건국대학교 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준례는 천주교 세례명인 줄리아(Julia : 율리아)의 한국식 표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준례가 그 뒤 개신교 신자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면 그는 어려서 천주교 세례교인이었으나 성장하면서 천주교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에서 빌렘 신부의 신심에 경도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의 아버지인 안태훈(安泰勳) 진사였다. 김구가 감수성이 높던 청년 시절에 황해도에서 명망 높은 안태훈 진사를 만난 것은 뜻깊은 인연이었다. 김구는 안태훈의 집안을 드나들며 그의 서실에서 천주학과 서학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학통으로 보면 김구는 유학자인 고능선(高能善)의 제자였지만, 단발한 안태훈이 공학(孔學)을 저버렸다 하여 고능선이 그와 절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구는 자신의 스승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안태훈과의 인연을 통하여 김구가 천주교에 귀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인연은 오래 이어졌다. 더욱이 안 진사의 아들이자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安定根)의 딸 안미생(安美生, 수산나)을 맏며느리, 곧 맏아들 김인(金仁)의 아내로 맞이한 혼맥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안미생은 중국 호북성에서 태어나 상해에서 성장했다. 그 뒤로 그는 가족을 따라 중국 각지를 전전하다가 홍콩 센트베리학원을 졸업하고 운남성(雲南省) 곤명(昆明)의 서남연합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한때 중경(重慶)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재중경(在重慶) 애국부인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1945년에 남편이 사망하자 안미생은 김구의 비서로 활동하였고, 1945년 11월 23일, 임정 환국 제1진으로 김구·김규식(金奎植)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 영어가 유창하였던 그녀는 귀국한 뒤에도 경교장에 머물며 김구의 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일제 시대의 천주교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답사팀은 태양이 작열하는 명동성당을 찾아갔으나 어디에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했다. 무턱대고 명동성당 사무실로 찾아갔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명동성당 사무장 김영한(요셉) 씨는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뭔가 도와주려고 종종걸음을 쳤다. 그는 우선 교회 사무실에는 김구와 관련된 이렇다 할 자료가 없으니 서울교구 홍보국을 찾아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홍보국을 찾아갔더니 홍보국 차장 유환민 마르텔리노 신부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승려처럼 머리를 파랗게 깎은 신부님을 처음 보았다. 분위기도 낯설었다. 마치 전위예술가 같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그는 천주교계에서는 잘 알려진 연극연출가였다. 답사팀의 설명을 들은 유 신부님은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홍보국으로서는 김구에 관한 자료를 소장한 것이 없고, 길이 있다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한국교회사연





1 김구와 맏며느리 안미생
2 경교장을 방문한 천주교 사제단(1948. 2.) 왼쪽 끝이 라리보 주교, 오른쪽 끝이 노기남 주교

구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쳐 주었다.

8월 16일 수요일. 우리는 다시 한국교회사연구소를 찾아갔다. 오래 전에, 최석우(崔奭祐) 신부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던 인연이 있던 터라 낯설지도 않았고, 감회가 새로웠다. 도서관 사서 유아라 선생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니 이런저런 자료를 챙겨주면서 부족한 것은 양인성(梁仁誠) 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해주었다.

명동성당은 1898년 5월 29일,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를 주보(主保)로 하여 봉헌되었다. 종현(鍾峴) 언덕에 섰기 때문에 종현성당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의 종현성당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들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당시의 주교는 라리보(Adrien Joseph Larribeau : 1883~1974)였다. 한국 이름이 원형근(元亨根)인 그는 프랑스 출신으로 1904년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하여 1907년 사제가 되자 그해 5월 서울에 왔다. 그는 1933년에 뮈텔 주교의 뒤를 이어 1942년까지 서울교구 9대 교구장(敎區長)으로서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기에 천주교회를 이끌었다.

라리보는 8·15광복이 될 때까지 헌신적으로 고아를 돌보았다. 광복 후인 1958년에 충남 대목구(代牧區) 초대 교구장을 거쳐, 1962년 대전교구장이 된 그는 주교좌(主敎座) 성당을 신축하는 등 대전교구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그는 1965년 8월 고령으로 현직에서 물러나 귀국하였다. 1960년, 58년 동안의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한 봉사와 공로로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고, 1962년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훈장을 받았다.

일제 말엽과 해방 정국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속앓이는 프랑스외방전교회와 독일계 베네딕토회의 갈등이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패전국으로 몰락한 독일계는 본국에서의 지원금마저 끊어지자 사목에로 눈길을 돌렸는데 이것이 프랑스외방전교회의 저항을 받았다. 이에 베네딕토회의 사우어 아빠스(Bonifatius Sauer, Abbas)는 그런 어려움을 교황청에 호소했다. 결국 1922년, 뮈텔 주교 권한의 원산교구가 사우어에게 넘어가고 평안도의 교회는 미국의 메리놀(Maryknoll)외방전교회에 넘어갔다.

이 일은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당초 초대 교회 당시 파리외방전교회의 지휘를 받으며 서구중심주의에 빠져 있던 한국 천주교회가 독일계 베네딕토회를 거쳐 미국 중심의 메리놀선교회로 넘어감으로써 교회의 색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해방 정국에서의 정치 풍향과 맞물려 한국 교회의 미국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천주교가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감과 아울러 부임한 신부가 곧 번 주교(Patrick James Byrne, 方濫恩 : 1888~1950)였다. 그는 미국 워싱턴 출신으로 볼티모어의 성마리아신학교(Saint Mary's Seminary)에서 수학한 다음 사제 서품을 받고 월쉬(A. Walsh) 주교의 비서를 지냈으며, 메리놀회가 교황청으로부터 한국 포교 업무를 위임 받자 1923년 5월 10일 평양지목구(知牧區) 설정준비위원으로 내한하였다.

번 신부는 먼저 의주 담임 신부로 부임하여 1924년에 신의주 본당을 설립했다. 그는 1927년에 평양지목구장이 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준교구에 해당하는 하위 교구로서 본당 신부가 맡고 있었다. 그는 1935년 일본 교토[京都]에 메리놀회의 감목(監牧)으로 부임했다가 1940년에 그 직책을 일본 신부에게 물려주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에 머물러 있었다.

해방 정국의 김구와 명동성당

해방이 되자 천주교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종현성당은 명동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John R. Hodge) 장군은 한국에 진주하면서 미군 군종사령관이자 뉴욕대교구장인 스펠만(F. J. Spellman) 대주교를 대동하고 인천을 거쳐 9월 9일에 서울로 들어왔다. 점령군 사령관이 주교를 대동하고 입국했다는 사실은 그리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다. 군정장관 아놀드(A. Arnold) 소장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매주 명동성당의 미사에 참석했다.





1 번 주교(P. James Byrne)
2 노기남 주교
3 성모병원장(창립자) 박병래 박사

하지는 당시 G2의 책임자 니스트 대령(Colonel Cecil Nist)을 노기남 주교에게 보내어 군정 측과 협력할 한국인 지도자 60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기남은 9월 18일에 하지 장군을 방문하여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기남은 장면(張勉) 등 측근과 상의하여 작성한 명단을 하지에게 제공했다. 그 명단이 우익 일색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의 정치적 선택은 이미 우경화했고, 천주교는 군정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종교 정책이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 측으로 쏠리고 있음을 감지한 이승만은 1945년 11월 30일에 노기남 주교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었고, 노기남은 12월 8일에는 명동성당에서 임시정부 주요 인사의 귀국을 환영하는 미사를 집전했다. 이때로부터 노기남은 장면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본디 노기남(盧基南 : 1902~1984, 세례명 바오로)은 평안남도 중화(中和) 출신으로서 1917년 용산 성심신학교와 대신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1930년 10월 사제로 서품되어 명동성당 보좌신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황국화 작업을 서두르던 일제가 외국인 교구장들을 모두 일본인으로 교체하려고 하자, 서울교구장 라리보 주교는 사임을 결심하고 후임자로 노기남을 비밀리에 로마교황청에 추천하여 그가 1942년 제10대 서울교구장에 임명되었다.

급박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본당 주임 신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교로 승격된 노기남은 초기의 저항운동과는 달리 1939년이 되면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산하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이사를 맡았고, 1943년에는 조선종교단체 전시보국회에 참석하여 특별지원병제도를 선전함으로써 허물을 남겼다.

이 무렵 한국천주교회의 또 다른 유력자로는 박병래(朴秉來 : 1903~1974, 세례명 요셉)가 있었다. 그는 충청남도 논산 출신으로 선조 때부터 가톨릭신자의 집안이었는데, 논산에서 사목하던 프랑스인 목세영(睦世永, Bermond J. Marie) 신부의 권고로 아버지와 신학문을 공부하고자 어린 시절에 상경하였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양정고등보통학교에 한 학년의 차이를 두고 학생으로 입학하였다. 뒤에 아버지는 남대문상업학교를 인수하여 동성상업학교(東星商業學校, 지금의 동성중고등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사업에 큰 공을 세웠다.

박병래는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마친 뒤 모교에서 내과를 전공했다. 1935년에 재단법인 경성구천주교회(京城區天主敎會)는 저동 소재 일본인 경영의 무라카미



민주의원들의 명동성당 초청 미사 (1946. 4. 21.)



번 주교 승품식(1949. 6. 14.)

병원[村上病院]을 인수하여 성모병원을 세워 그를 초대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병원이 현재의 가톨릭대학 의학부이다. 이때 그는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연맹 간사와 종현(명동)가톨릭출판사 이사, 가톨릭의사협회 회장, 혜화동성당 총회장, 대한천주교총연맹 중앙상임위원을 지냈다.

광복 이후 박병래는 대한결핵협회장·대한내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보건 후생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한국전쟁 동안에 공군 군의감을 지낸 그는 일제 시대부터 도자기, 특히 조선 백자 수집에 열중하였는데, 말년에는 문화재 362점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민족 문화 발전에 공적을 남겼다.

이러한 인맥을 가지고 있던 한국천주교회는 미군정으로부터 많은 후의를 입었다. 이를테면, 1943년부터 중지되었던 성탄 자정 미사가 1945년부터 전국 라디오로 생중계되었으며, 매주 일요일이면 9시 30분에 미군을 위한 미사를 올리면서 메리놀외방선교회가 미군정과 한국인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1947년 12월 24일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제한송전을 해제하자 서울방송(HLKA)에서 자정까지 음악과 연극을 방송한 다음 자정 미사를 중계했다.

1946년 2월 1일에 열린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중앙위원회와 김구 계열이 합세하여 소집한 비상국민회의가 바로 명동성당에서 열린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회의에는 가톨릭계를 포함한 46개 단체 대표 169명이 참여하여 홍진(洪震)을 의장으로, 최동오(崔東旿)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민주당의 창당 요인 가운데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는데 이는 미군정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946년 5월 조선공산당 위폐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본부와 해방일보사가 함께 쓰던 조선정판사가 폐쇄되자 미군정은 가톨릭교회에 이를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경향신문》이 발행되었다.

위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은 어쩌면 김구의 행적과 무관하게 보일 수 있으며 부덕한 이면사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퍼즐처럼 엮여 해방정국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들을 짚어 갈 수밖에 없다.

해방정국에서의 천주교와 김구

임정 인사들이 환국한 지 보름이 지난 1945년 12월 8일에 노기남 주교는 명동성당에서 임정 인사 환영미사를 올렸다. 김구가 이 미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다. 1946년 4월 21일, 명당성당에서 큰 행사가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 사진 자료집』(208쪽)에는 영문 모를 사진 한 장이 설명 없이 실려 있다. 사진을 보면, 김구와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명동성당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 날은 주일이었다.

사실을 알아보니 그날 10시에 대미사가 있었는데 노기남 주교가 민주의원들을 초대하여 미사를 본 뒤에 점심을 대접하는 모임이었다. 이 사실은 노기남 주교의 일기(1946년 4월 21일자)에 메모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직책으로 보면 민주의원 의장인 이승만이 수석 대표였으나 김구가 앞장을 서 입장하고 있고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여사 부부가 뒤따라오는 모습이 이채롭다. 옆에 도열해 있는 여학생들은 계성여학교 학생으로 보인다.

이 무렵 일제강점기에 평양교구장을 지냈다가 조선을 떠났던 번 주교가 1947년 한국 파견 시찰관(Visitator Apostolicus)으로 임명되어 입국했다. 그는 이어 한국 주재 초대 교황 사절로 승진 임명되었다. 1948년 12월에 UN에서 한국을 승인하자 로마교황청은 가장 먼저인 1949년 4월 17일에 한국을 승인하고 번 주교를 파견한 것이다.

필라델피아 가제라(Gazera) 교구 주교로 임명된 번은 6월 14일 오전 8시 30분에 명동성당에서 뉴욕대교구 보좌주교인 맥도널드(McDonald)의 집전으로 주교성성식(主敎成聖式)을 가졌다. 통상적으로 주교 서품은 그가 소속된 교구에서 집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번 주교의 경우에는 형편이 그럴 수 없어 한국에서 주교에 취임했다. 주교 승품식에는 이승만 대통령 부부, 김구, 신익희(申翼熙) 국회의장, 임병직(林炳稷) 외무부 장관, 안호상(安浩相) 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미사를 마친 뒤에 축하식과 축하연이 열렸다. 식사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번 주교는 남하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7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공산군은 번 주교, 비서인 부드(Booth, 夫文化) 신부, 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의 비에모(Villemot, 禹一模) 신부, 혜화동 가르멜수도회 수녀 다섯 명, 혜화동 가르멜수도회의 공베르(Antoine Gombert 孔安國) 신부와 인천 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의 공베르(Julien Gombert, 孔安世) 신부, 살트르 성바오로수녀회 관구장 베아트릭스(Beatrics) 신부, 그리고 수녀원장 으제니(Eugeni)를 납치했다.

공산군은 번 주교 일행을 소공동 삼화빌딩에 감금했다가 7월 19일에 평양으로 이송했다. 그들은 평양에서 10월 21일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0명의 다른 납북자들과 함께 만주 국경까지 끌려갔다. 번 주교는 끌려가면서 기력이 핍진한 데다 폐렴에 걸려 중강진 하창리에서 '죽음의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레인(R. A. Rane)이 그의 생애를 그린 전기 『쇠사슬에 묶인 대사』





4 남산의 백범 김구 선생 동상
5 우빈 추기경이 광복군 출정식에 남긴 방명록

(*Ambassador in Chains,* New York : P. J. Kenedy, 1951)가 있다.

마지막 가는 길

1949년 6월 26일은 일요일이었다. 김구는 늘 하던 대로 남대문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례하고자 하였으나 차가 없어 교회에 가지 못하고 경교장에 머물러 있었다. 정장 두루마기를 입고 거실에서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두희(安斗熙)가 찾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전부터 드나들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맞아들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두희의 저격을 받았다.

김구가 저격을 당하자 비서진에서 서둘러 부근에 있는 적십자병원 이(李) 외과과장을 불러 응급 치료를 하려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하오 12시 5분에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소식을 들은 주치의인 성모병원장 박병래 박사가 간호사와 함께 달려왔으나 회생 가능성이 없게 되자 박병래는 그에게 베드로(Peter)라는 세례명으로 대세(代洗)를 주었다. 대세라 함은 임종 또는 사망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가까운 지인(知人)이 신부를 대신하여 세례를 주는 예식을 뜻한다. 김구는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

김구는 귀국한 뒤 4년 동안, 망명 생활에서 병약해진 몸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맏며느리인 안미생으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많이 들었고, 주치의 박병래 박사와도 자별한 사이가 되었다. 안미생은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2007년에 향년 94세로 세상을 떴다. 김인과의 사이에 난 무남독녀 김효자(金孝子, 1941~?)는 박병래의 손에 크다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간 뒤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

김구가 1949년 6월 26일 흉탄에 쓰러진 뒤 세월이 흘러 그의 서거 20주년이 되던 1969년 여름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그의 동상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윤제술(尹濟述) 국회부의장, 이석제(李錫濟) 총무처 장관, 장개석(蔣介石) 총통의 특사인 자유중국고시원장 손과(孫科) 박사와 우빈(于斌) 추기경, 그리고 김현옥(金玄玉)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했다.

일중 김충현(一中 金忠顯)이 동상 좌대의 글씨를 쓰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과 장개석 총통의 휘호를 음각했다. 공군군악대의 주악으로 조가가 울려 퍼지고 손과 박사는 추모사를 통해 "한국의 위대한 애국자 김구 선생의 동상 제막을 자유중국국민과 더불어 축하한다."고 덕담을 했다. 아들 김신(金信) 주중 대사는 "온 겨레의 성원으로 선친의 동상이 서게 되어 기쁘다."고 유족 인사를 했다.

중국에서 특별히 우빈 추기경을 파견한 것은 김구와 그와의 깊은 우의를 추념하고자 함이었다. 우빈은 1901년에 흑룡강성에서 태어나 상해 진단대학(震旦大學)을 졸업하고 로마로 유학하여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그는 북경 보인대학(輔仁大學)의 학장을 지낸 다음 1936년에 주교 서품을 받았다. 그는 김구와 각별한 사이여서 1940년 11월 11일에 광복군 출정식에 참여하여 서명을 남겼다. 김구는 그가 1943년 카이로회담 때 장개석을 수행하면서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빈 추기경이 한국에 입국할 때 특별히 그해 추기경에 오른 김수환(金壽煥) 대주교가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우빈은 그를 향하여 "세계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추기경을 가진 한국 교계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명동성당에서는 8월 24일에 우빈 주교 방한을 기념하는 미사를 올렸다.

김구의 파란만장했던 종교의 순례는 이렇게 여기에서 끝난다. 유교·불교·동학·기독교·천주교에 모두 몸을 담은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그 모든 곳을 아직도 순례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어느 한 곳에서 안식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아직도 울먹이며 기도하고 있을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9년 8월 23일자
『경향잡지』 1949년 8월호(Vol. 43, No. 1013)
김구(지음), 도진순(주해), 『정본 백범일지』(서울 : 돌베개, 2016)
『명동본당사 : 1882~2006』(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민족사와 명동교회』(서울 : 명동성당, 2001)
『서울교구연보(I) : 1878~1903』(서울 : 명동천주교회, 1984)
『서울교구연보(II) : 1904~1938』(서울 : 명동천주교회, 1987)
신복룡, 「북부지방의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3) : 3·1운동사』(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1988)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 한국민주당연구』(II)(서울 : 창비, 1984)
『한국가톨릭대사전』(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Rane, R. A., *Ambassador in Chains : The Life of Bishop Patrick J. Byrne : 1888~1950* (New York : P. J. Kenedy, 1951)

면담자

김영한 : 명동성당 사무장
양인선 : 천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유환민 마르텔리노 신부 : 천주교 서울교구 홍보국 차장
정병준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생애에 걸쳐 선택의 기로에서 보여줬던 민족 지도자 백범의 사상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은 개인적이며 사적이지만, 그의 선택이 민중의 선택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변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도자가 된다. 백범은 겨레의 행복을 기준으로 하여, 그를 가르쳤던 사람들의 염원과 백범 자신의 열의에 찬 젊은 날의 시행착오와 지속되었던 실천적 노력의 과정 속에서 '더불어서' 민중과 함께 사상을 선택해갔다.

글_ 류숙희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 다중지능연구소 연구이사

백범의 사상적 흐름

사상(思想)이란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을 말한다. 이 사상이란 사회가 만들어놓은 역사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각 개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견해와 생각을 받아들여, 자신의 경험과 이미 자기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관념과 생각으로 이를 소화하고, 확대하고, 해석한다.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클수록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게 되고 개인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여 이 사상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백범이 살았던 1880년부터 1948년까지는 제국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되었고, 약소국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기이며, 냉전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과학 분야에서는 종의 기원, 미생물, 백신 등의 중요한 발견과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사상적으로도 사회진화론과 자본론 등이 발표되어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백범 역시 특별히 변화 많았던 시기에 이후 민족의 나아갈 방향이 되었던 중요한 사상적 선택을 하게 된다. 백범의 사상적 흐름은 크게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백범의 소년기에 영향을 준 사상은 평등주의였다. 김구의 소년 시절은 신분제도로 인한 불평등으로 깊이 상처를 받았던 시기였다. 황해도 산골에서 가난한 상민 가족의 아들은 무엇보다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가문의 염원과 가족애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는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여 발전적인 계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다. 김구는 자기를 위해 마련된 학교나 교육지침, 안정된 생계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의 사상의 혼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일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신의 양명을 주장하지 않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혼란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이었다. 사상은 꼭 이념이 되지 않아도 좋다. 의미 있는 사상은 어머니와 같은 유의미한 타인의 사랑이 기반된 희생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실행되어 나가기도 한다. 이 시기부터 꿈꾸었던 평등한 세상에 대한 백범의 열정은 중단되지 않았고 이후 반상제도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된다.

둘째, 백범의 청년기의 사상적 선택은 인내천(人乃天 : 사람이 곧 하늘)의 동학과 충효의 성리학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동학은 인권과 평등을 이념으로 하여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다. 백범은 동학을 접하며, 사회적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상적 선택으로 힘 있게 나아가기에 동학의 조직력과 파급력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백범은 접주로 참가했던 동학전투에서 패하여 잠시 머문 청계동에서 고능선 선생으로부터 성리학에서의 인간의 도리와 충효, 그리고 지도자의 윤리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과거를 준비하면서부터 읽어온『대학(大學)』, 중국 역사인『사략(史略)』, 정치규범에 관한『통감(通鑑)』, 외에『마의상서(麻衣相書)』,『지가서(地家書)』,『화서아언(華西雅言)』,『주자백선(朱子百選)』등의 책과『육도(六韜)』,『삼략(三略)』등의 병서를 읽으면서, 유학의 실천윤리와 인간관계에 관한 충효의 사상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셋째, 민족을 깨어나게 하고, 힘 있는 나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애국계몽사상의 선택이다. 백범은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 사건으로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태서신사(泰西新史)』,『세계지지(世界地誌)』와 같은 신지식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원리와 관점을 접하게 된다. 당시 애국계몽운동의 사상적 흐름은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박은식의 교육구국운동, 신채호의 한국근대민족주의 역사학, 주시경 등의 국문연구 등이 이 시기를 전후로 본격화된다. 이와 같은 애국계몽운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서구사회학을 선도했던 꽁뜨, 스펜서, 키드, 루소, 몽테스키외 등의 학설을 국내 개화 지식인들이 당시 '개화자강' 및 '국권회복'을 위해 취사 선택하여 도입하여 정리한 사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용하, 2013)

특히 백범이 관서지방의 기독교계 인사로서 을사조약 강제체결 반대운동에 참여하여 이후 임시정부의 여러 요인을 만나게 되고(최기영, 2003, p.36), 출옥 후 교육운동,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사상의 선택에 기인한다.

넷째, 독립이라는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족독립사상과 운동을 수용하였다. 백범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임시정부는 초기에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와 인사들이 참가하였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커졌지만,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국무령제와 국무위원제 등의 형태에 대한 논란과 변화,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인애국단활동, 좌우합작운동, 한국광복군, 개인, 민족, 국가간 균등을 지향하는 삼균주의(三均主義)의 선언 등의 노력으로 광복 전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족독립운동은 제국주의에 대치되는 민족이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강운동(自强運動)이기도 했다.

정치가의 정치사상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면의 전반적인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정치사상이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권력, 절차에 대한 생각으로, 이에는 세계와 인간, 사회, 역사, 가치, 진리에 관한 관점이 모두 녹아 있다. 한국독립당의 당령과 정부 조직의 운영원리 등을 다듬는 과정에서 선택된 정치사상에는 백범은 물론 임시정부 요원들의 가치관도 함께 녹아 있다.

다섯째는 새로운 국가의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자유와 평등)를 선택하였다. 광복전후 세계정세는 더욱 복잡해져 미국과 소련의 군정체제가 시작되고, 남북분단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백범은 계급에 앞서 혈연과 역사를 가진 민족이 영구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민족의 독립을 우선시 하였다. 백범은『백범일지』에서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이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쓰고 있다. 따라서 백범의 민주주의는 소련식, 미국식이 아닌 민족이 주체가 되어 개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특히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요 정치 강령으로 표방한 삼균주의는 재산, 정치 그리고 교육을 민족 전원이 균등히 향유하자는 정치이상으로, 김구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 세 가지를 평등하게 나누면서 문화적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길 바랐다.

여섯째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인 통일된 문화민족국가론(자주독립민족국가)의 선택이다. 백범은 우리나라

백범의 사상적 선택의 핵심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정하는 선택방식에 있었을 것이다.
백범은 그가 사랑했던 가족과 스승, 겨레의 행복을 기준으로
그를 가르쳤던 사람들의 염원과 백범 자신의 열의에 찬 젊은 날의
시행착오와 지속되었던 실천적 노력 속에서
민중과 겨레와 더불어 '함께' 사상을 선택해갔다.

의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이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평화통일 운동을 제안한 대표적 정치가이다.(도진순, 2003)

백범의 사상적 선택의 기준과 특성

지식과 사상 그리고 국가간 힘이 격변하는 이 시기를 조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민(상민)으로 태어났던 어린 창암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사상을 접하고, 어떻게 전달받고, 무엇을 선택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았느냐를 살펴보고, 알리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백범을 길러내기 위한 중요한 함의를 줄 것이다. 따라서 백범의 사상적 흐름을 이어가게 하는 선택의 기준과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백범의 선택의 사상적 기준은 가족이자, 스승이자, 겨레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이다. 개인 김창수가 백범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가 했던 사상적 선택이 이 명제를 잘 보여준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면서도 노력하여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꿈. 이 가족은 창암의 가족, 창수의 친지, 백범 김구의 동지, 그리고 가족의 합인 민족과 이웃의 평등한 권리와 행복이라는 기준이었다.

김구는 혈연에 중심을 둔 민족지상주의자(신복룡, 1981)로 인정되는데, 이는 그가 역사와 혈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민족국가를 수립하여 안으로 자유, 평등, 문화창달을 표방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외세의 간섭 없이 한 민족의 완전한 통일, 자주 독립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김구에게 민족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동현, 1983)임과 동시에 자기가 확장된 모습이다.

둘째, 서로 가르치는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은 백범의 사상적 선택에 힘을 주었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서로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인류 정신의 계승자로서의 숙명(아나키아 : ANArKH)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개체의 적극적인 선택이 이 다음 세대의 아나키아를 바꾼다. 백범의 생애와 관련해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김주경, 유완무와 성태영 등의 일종의 사적인 '인재발굴 집단교육'의 수혜자로 백범을 지목한 일이다. 원래 어느 문화에서나 글방제도, 교육운동, 교육구국운동, 학생손님사사제도와 유사한 것이 있었고, 특정 젊은이를 선택하고 그를 가르쳐서 시대를 이끌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염원은 후손의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방법이다. 더 많이 서로 모이고, 가르치고, 기르면서 시대에서 살아남는 사상이 세대를 거쳐 흘러가게 된다.

셋째, 선택을 위해 청년기의 시행착오는 옳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류숙희, 2009) 청년 시기의 백범은 수많은 반성과 혼란, 후회, 분노와 용기, 그리고 포기와 절망감이 교차하는 시절을 보냈다. 고심하고, 결정한 것을 과감히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얻는 시행착오로 삶을 채워나가는 시기였다. 누구 한 사람이 옳은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없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섯 종류의 사람들은 그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 혈연 및 공동생활 관계로 구성된 '가족', 가르침을 베풀고 배우는 '스승', 스승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교육 의지를 가진 '잠재력 교사', 동일한 일의 영역에서 뜻과 방향을 같이하며 함께 일하는 '벗과 동지', 동일한 일의 영역이지만 뜻과 방향이 달라 서로의 일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반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평가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청중'이다. 좋은 선택에는 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하다. 이들을 통해 진실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하고, 선택의 책임에 따른 고통을 함께 견딜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백범의 선택은 가서 확인하고, 듣고, 평가하며, 아파하고 실행하여 깨닫기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들었으며, 함께 행동하고 끊임없이 스승과 동료들과 '함께'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고, 상황의 개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실행해 옮겼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독'이 아닌 '함께' 이루어졌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은 개인적이며 사적이지만, 그의 선택이 민중의 선택과 소망을 대변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 백범은 개인 김창수가 아니라 그 시대의 한 쪽 영혼으로 볼 수 있다. 백범의 운명은 그가 살았던 하루하루의 소망, 해결해야 할 소명의 과제, 그 전의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 주변사람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공명이 버물려져 단 하나의 정념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통해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사상을 만난다. 백범 한 사람의 선택인 듯하지만 함께 하는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백범처럼 되려면, 우리는 공감의 기회, 고통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사회가 되고, 따뜻한 눈으로 주장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상의 범람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더 진실된 길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백범의 사상적 선택의 핵심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정하는 선택방식에 있었을 것이다. 백범은 그가 사랑했던 가족과 스승, 겨레의 행복을 기준으로 그를 가르쳤던 사람들의 염원과 백범 자신의 열의에 찬 젊은 날의 시행착오와 지속되었던 실천적 노력 속에서 민중과 겨레와 더불어 '함께' 사상을 선택해갔다.

《참고문헌》

김구(1942). 백범 김구 자서전 : 백범일지(도진순 주해, 2001). 서울 : 돌베개.

도진순(2003). 백범 김구의 평화통일운동, 그 연원과 생명력, 백범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1집

류숙희(2009). 다중지능 관점에서 본 백범 김구를 성장시킨 인적환경. 한국학술정보(주)

신용하(2013). 구한말 서구 사회학의 수용과 한국 사회사상.
大韓民國學術院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제52집 1호, pp.223~294.

이동현(1983). 김구와 남북협상. 정법논총, 18(1) : 79~85. 건국대학교.

최기영(2003). 백범 김구의 애국계몽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제1집.

전명숙(2006). 백범의 정치 사회 사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백범은 자신의 운명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힘껏 껴안은 분입니다!”

『백범, 거대한 슬픔』의 저자 김별아 작가

11년 만이다. 2008년 『백범』을 출간했던
김별아 작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백범 선생 서거 70주년을 맞아 『백범, 거대한 슬픔』을 재간했다.
위인이라는 가림막을 벗겨내고 한 인간으로서
백범의 삶을 바라보니 자신의 운명을 지독히 사랑한
한 남자를 마주할 수 있었노라 이야기하는 김별아 작가.
그녀의 손끝에서 백범 선생이 또 한 번 살아 돌아왔다.

글_ 정임경 · 사진_ 장병국

‘청량한 가을이었다. 중국 상해 강만(江灣) 비행장이 아침부터 떠들썩했다.’

『백범, 거대한 슬픔』의 첫 문장부터 김별아 작가는 백범 선생으로 빙의해 있었다. 『백범일지』를 토대로 백범 선생의 삶에서 중요한 장면들에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했다는 그녀는 오롯이 백범 선생이 되어 그의 이야기를, 외로움을, 고독을 써 내려갔다.

슬픔이라는 단어로 백범의 삶을 점철한 김별아 작가는 스무 살 때 일본군 중위를 처단하며 도망자 신세가 된 백범 선생의 ‘냉혹한 슬픔’에, 그리고 자신 대신 감옥에 투옥된 뒤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그의 ‘쓰라린 슬픔’에, 고된 수감생활을 버티며 이봉창 · 윤봉길과 나눈 동지애로 인한 ‘뜨거운 슬픔’에 함께 울었다.

김별아 작가는 김창암, 김창수, 김두호, 김구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사는 동안 백범 선생이 삼켜야 했던 숱한 슬픔을 불러내며 영웅이 아니라 슬픔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부각했다. 백범 선생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백범일지』를 낱낱이 해체하며, 문장과 문장 사이 행간 읽기에 집중한 그녀는 탁월한 필력으로 백범 선생의 인간적 면모를 촘촘하게 그려냈다.

Q 2008년 『백범』 출간 후 11년 만에 『백범, 거대한 슬픔』을 재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범』이라는 작품에 애정이 많습니다(웃음). 11년 전 책이 발행되었고, 절판되었습니다. 판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백범 서거 70주년을 맞아 재간한 것입니다. 재간인 만큼 표지와 제목 정도 바꿨어요. 『백범』을 출판할 당시 제목을 ‘거대한 슬픔’으로 제안했지만, 출판사 만류로 『백범』이라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제 바람대로 『백범, 거대한 슬픔』으로 출판했습니다.

Q 『미실』 『논개』 『백범, 거대한 슬픔』 등 역사 소설을 많이 집필하십니다.

2005년 제가 『미실』을 쓰기 전까지 여성 작가들이 역사물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여성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성 작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로 생각했고, 여성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역사 소설을 썼습니다. 『미실』 이후 꽤 많이 썼네요(웃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성이 강합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은 매혹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소재죠. 반 정도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매혹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명확하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작업할 때는 역사서의 행간을 읽어서 쓸 수는 있어도 아닌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경계했어요. 묘사할 때에도 정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조선 근대의 인물로 백범 선생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백범』은 네 번째 역사 소설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고대 인물인 『미실』, 두 번째는 중세의 『논개』 그리고 근대의 주인공이 백범 선생인거죠. 조선의 근대를 이야기하려면 3부작은 써야 시대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대의 관문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립운동사라면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에 임시정부가 있었죠. 이렇게 범위를 좁히니 백범 선생이 계셨습니다. 백범 선생이 안 계셨다면 아마 임시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임시정부를 지키며 버텨낸 순간들이 가장 백범다운 시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임시정부는 민중이 3·1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만큼 굉장히 돌출적 집단이에요. 백범 선생도 그렇죠. 대부분은 백범을 위인으로 여기지만, 저는 이인(異人)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의 아버지 또한 “우리 창수는 다른 아이다, 이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상한 사람으로서의 캐릭터가 강해 자연스레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문학적인 캐릭터로도 너무 매력적이죠. 먼저 백범 선생이 젊은 날 치기 어린 모습을 다스리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마음속에 짐승(폭력)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대에 일본인을 때려죽인 사건도 그 폭력성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를 공부할수록 '왜 그는 이런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Q 서점에는 백범 선생의 생을 다룬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책은 위인으로서의 백범 선생의 활동, 업적을 써 내려갔다면 『백범, 거대한 슬픔』은 위인이라는 포커스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그가 왜 그렇게 살고 죽어야 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운명에 맞서는 백범 선생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모진 고문과 박해, 나라를 잃고 핍박을 받는 세월 등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한 인간의 아픔과 고독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Q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선생의 '슬픔'에 집중한 까닭이 있을까요.

글을 쓰면서 백범 선생에 감정 이입을 많이 했는데 그의 생은 참 슬펐습니다. 제가 백범을 이해하는 방식도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백범, 거대한 슬픔』이고요. 그 어떤 일도 쉽게 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통을 밀고 나가면서 사셨어요. 백범 선생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행복하셨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아내, 아들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삼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한 사람이 타자인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 슬픔이라고 합니다. 연민인 거죠. 백범 선생을 위인으로 생각하면 이 슬픔은 사라집니다. 슬픔은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한 관계에서만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저 또한 백범을 거대한 위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의 삶을 바라봤으니 한없이 슬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하지도 않고, 존경받는 것도 원하지도 않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고, 조금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Q 책을 쓰면서 뭉클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느 장면인가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봉창 의사와 자신보다도 더 자신을 믿는 백범과의 대화를 써 내려간 순간이에요. 입고 싶으면 일본 전통 겉옷인 하오리를 걸치고, 부르고 싶으면 엔카를 구성지게 뽑는 이봉창을 가까이 두는 백범을 주변 사람들은 책망했지만, '일을 맡기면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닌 백범은 그를 온전히 신뢰해요. 프랑스 조계에서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는 백범이 자신에게 천여 원의 거액을 주자 그는 '이 돈을 가지고 달아나 마음대로 써버려도 찾으러 오지 못하는데 왜 자신을 믿느냐며 이토록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이 선생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하잖아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백범이 있어 눈물을 흘리고, 또 거사를 치를 수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궐기가 뭉클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고향이 용산이라는 거 아세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기념사업이 잘 진행되는 반면, 가족과 의절한 고아나 다름없었던 이봉창 의사는 선양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더 쓰이기도 합니다.

Q 책을 집필하는 내내 백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백범 선생이라고 모든 일에 완벽할 순 없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스치다 조스케를 죽인 것도 테러라고 비판하는 이가 있듯 그의 행보가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백범 선생이 『백범일지』를 쓴 것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백범일지』는 굉장히 거대하면서도 솔직한 기록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백범 선생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거나 미화하는 것을 단 한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간에서 선생의 심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명하고 소박하고, 스스로에 대해 엄정한 시각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Q 작가의 말에서 '한국 독립 투쟁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백범 김구의 생애를 쓰는 동안 나는 줄곧 묻고 또 물었다.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죽어야 했냐고, 그에게 묻고, 내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답은 좀 찾으셨나요?

『논개』와 『백범』을 캐나다에 있을 때 썼습니다.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머물러서일까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과 애족을 논할 때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논개와 백범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민족을 위해 삶을 바치기도 했지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두 분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기에 태어난 땅, 함께 사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한 거죠.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충실했던 것이죠. 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국과 애족은 자신의 삶을, 운명을 사랑하는 것, 하필 한국에서 태어나고, 하필 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운명을 받아들이고 껴안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 나라에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기에 나라를 위한 희생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Q 『백범, 거대한 슬픔』을 재간하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 소설의 모든 주인공도 그러하지만, 위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백범 선생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인이라는 것에 가려진 가림막을 벗겨내고 한 인간으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인간 백범 선생을 보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며,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역사 소설을 쓰지만, 역사는 옛이야기이자 과거입니다. 위인들을 과거로 이야기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 또 위인 혹은 거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와 같은 생각으로 나와는 자연스럽게 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삶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커지는 거죠. 김구 선생 관련 책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읽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 그래서 위대하고 존경해야 하는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삶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한 인간으로 내려놓는다고 존경심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일 때 그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범에게 죽음은 평생의 '벗'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잡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잡은 손마저 탁 놓아라. 그것이 대장부다."
(得樹攀枝無足奇 득수반지무족기, 懸崖撒手丈夫兒 현애살수장부아) 백범 김구의 삶을 관통해 온 좌우명이다.
동학혁명 실패 후 피신하던 백범이 몇 달간 몸을 의탁한 안태훈(안중근 의사의 부친)의 집에서 만나 큰 가르침을 준
고능선에게서 배운 신념이다.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결단의 순간, 그는 이 좌우명을 되새기며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곤 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에게 죽음은 평생의 벗처럼 따라 다녔다.

글_ **최종등** 자유기고가



가흥 피난시기 저봉장(저보성 아들) 집에서

법부대신이 백범을 포함한 사형수의 집행을 명하는 고종의 재가를 받았는데,
그때 입직한 승지중 한 사람이 그의 죄명이 국모보수인 것을 보고
재가된 안건을 다시 가지고 어전에 나아갔다.
고종은 즉시 어전회의를 열고 사형집행 정지를 명했다.
한 관료의 용기가 극적 반전의 계기를 이끌었다.

3일 전 개통된 전화, '미래의 백범' 구하다

동학혁명 실패 후 해주 청계동 안태훈의 집에 의탁했던 백범 김구는 20세인 1895년, 보다 넓은 식견과 경험을 쌓기 위해 청나라 여행을 떠난다. 방랑 중 만난 의병장 김이언의 강계 고산진 전투에 참가했다 패배한 후 잠시 귀향했다가 다시 청나라 기행에 나선 백범은 때마침 단발령 등으로 정국이 격동에 휩쓸리고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청국행을 포기했다. 길을 되돌려 안악으로 가던 중 이른바 '치하포 사건'을 일으켜 주막집에서 만난 일본군 장교 스치다 조스케를 척살한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에 대한 민족적 복수였다. '국모보수(國母報讐, 국모의 원수를 갚음)'란 죄명으로 인천감옥으로 송치된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일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사형수임에도 그의 일상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태서신서』『세계지지』 등을 읽으며 신학문의 세계에 빠져들고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운명의 사형 집행일 아침 해가 밝았다. 백범은 태연하게 독서를 하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으나 밤이 오도록 아무런 낌새도 없었다. 그 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 사형을 유보하라는 고종의 어명이 전화로 전달됐다.

1896년 11월 7일,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영화 같은 극적인 장면이다.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두 번의 고비가 있었으나 운명은 두 번 다 백범의 편이 되어 드라마틱한 반전에 복선을 깔아 주었다.

복선 하나. 당시 사형은 임금의 재가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다. 법부대신이 백범을 포함한 사형수의 집행을 명하는 고종의 재가를 받았는데, 그때 입직한 승지 중 한 사람이 그의 죄명이 국모보수인 것을 보고 재가된 안건을 다시 가지고 어전에 나아갔다. 고종은 즉시 어전회의를 열고 사형집행 정지를 명했다. 한 관료의 용기가 극적 반전의 계기를 이끌었다.

복선 둘. 사형집행 정지 어명이 내려졌지만 백범이 밧줄에 목을 걸기 전까지 전달되지 않았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근대적 통신수단이 전무했던 당시 인천감옥으로 신속히 연락하기 위해서는 파발마로 전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집행 3일 전 인천까지 전화가 개통돼 어명을 빨리 전달할 수 있었다.

어명으로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으나 그의 옥중 생활은 계속됐다. 언제 다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위에서는 그의 구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실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출옥이 불투명해지자 백범은 탈옥을 결심했다. 의기투합한 몇몇 죄수와 주위의 도움으로 형리를 구워삶아 탈옥에 성공, 투옥된 지 2년 만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다.





1 김구 선생이 투옥됐던 인천감리서
2 인천감리서 현재의 터



영화 〈대장 김창수〉 중에서

자살 시도로 임사(臨死) 체험도

백범의 삶에는 한 순간도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때로는 모진 고통으로, 때로는 혹독한 고문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기로 두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은 치하포 사건으로 투옥된 인천감옥에서였다. 애당초 해주감옥에 투옥됐던 백범은 인천감옥으로 이송됐다. 인천으로 가는 뱃길에서 동행했던 어머니가 호송하던 순검들이 잠든 틈을 타 백범에게 "어차피 죽을 몸인데 같이 죽자"며 동반 투신자살을 요구했으나 그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위로하여 결심을 되돌린 바 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실내는 더할 수 없이 불결한 데다 장티푸스에 걸려 고통이 극에 달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안심시킨 그도 극심한 고통에 굴복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한다. 다른 죄수들이 잠 든 틈을 타 손톱으로 이마에 '충(忠)'자를 새기고 허리띠로 목을 맸다.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혼은 순식간에 고향으로 가 친하게 지냈던 6촌 동생 창학과 놀았다. "고향이 늘 눈앞에 어른거리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넋이 먼저 가 있더라(고원장재목 혼거불수초, 故園長在目 魂去不須招)"라는 옛 한시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이른바 죽음의 갈림길에서 느낀다는 임사 체험 같은 것이리라.

죽어가던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죽기 직전 격렬하게 요동을 치자 차꼬에 함께 묶여 있던 죄수들이 고통을 못 이겨 고함치는 등 난리를 쳤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소동을 일으킨 죄수들 덕분에 목숨을 구한 셈이다.

"죽인다" VS "죽겠다"… 민족의 사표 백범 탄생

김구가 두 번째 자살을 기도했던 곳은 서대문 형무소다. 안악 사건(1911년, 36세)으로 수감된 그는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 사건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모진 고문에 시달린다. 안악 사건은 안중근 의사의 4촌 동생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안악 부자들을 권총으로 협박하다 체포된 사건이다. 일제는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의 씨를 말리려는 속셈으로 황해도를 중심으로 평안도, 경성 등지에서 수십 명의 애국지사와 지식인에게 이에 가담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체포한다.

자백을 강요하는 심문에 고문은 동반자처럼 따라 다닌다. 7번의 심문에서 그는 6차례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죽인다'는 협박에 '죽겠다'는 결기로 맞서 싸웠다. 몽둥이로 온몸을 맞을 때 그는 "안 아프다"라며 내복을 벗고 맞았다. 고문자와 피고문자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 열린 8차 심문 때 그는 자살을 결행하고 만다. 일본 심문관과의 '뭉우리돌' 논란이 발단이었다. 일본 심문관이 "새 논밭을 산 지주가 거추장스러운 뭉우리돌을 걸러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토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겁박하자 백범은 죽기를 결심하고 옆에 있는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는 단호한 결행으로 응수했다. 온갖 위협과 고문이 안 통하자 일본인들은 회유책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정중히 대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자백하도록 유혹했다. 회유책 역시 효과가 없자 재판에서 그는 강도죄 15년, 보안법으로 2년, 모두 17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두 차례 연거푸 이어진 감형으로 5년으로 가벼워졌다. 잔여 형기는 2년밖에 되지 않았다.

2년 뒤면 나가서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백범은 종래의 창수(昌洙)란 이름을 버리고 탈옥 후 부르기 간편한 구(龜), 호는 연하(蓮下)를 사용해 왔으나 출옥하면 조국 독립운동에만 헌신할 결심을 굳히고 개명을 하게 된다.

이름은 구(龜)에서 구(九)로, 호는 연하에서 백범(白凡)으로 바꾸고 이를 감옥의 동지들에게 선포한다. 이름을 고친 것은 왜의 민적(民籍)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백범이라 함은 "나라가 독립하려면 천한 백정이나 무식한 범부(凡夫)일지라도 나만큼의 애국심은 가져야 하며, 나부터 그 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영원한 민족의 사표 '백범 김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총알 품은 사나이' 고유의 서체 '떨림체' 완성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 백범은 늘 암살과 체포의 위험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갔다. 숱한 위기일발의 순간이 있었지만 '남목청 저격 사건'은 저승사자가 백범을 저승 문 바로 앞까지 끌고 간 사건이었다.

격화된 중일전쟁으로 상해를 떠난 임시정부는 남경을 거쳐 호남성 장사에 자리 잡았다. 1938년 5월 3일(63세), 임정 내 3당(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선혁명당 본부가 있던 남목청에서 연회를 열었다. 연회가 막 시작할 때 조선혁명당 중집위원에서 제명된 이운환(李雲煥)이 들이닥쳐 권총을 난사했다. 첫 발은 백범, 둘째는 현익철, 셋째는 유동열에게 날아가 중상을 입혔다. 넷째 발에는 지청천이 맞았으나 찰과상에 그쳤다. 그때 백범은 죽다 살아났



윤봉길 의거 후 첫 피난처
(가흥 수륜사창 : 김구 친필)

다. 의식불명인 상태로 상아의원에 도착했을 때 그를 진단한 의사는 중상이어서 살 가망이 없다 하여 문간에 방치했는데 네 시간이 넘도록 절명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치료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범인 이운환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중일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탈옥하고, 연루자들도 석방되어 끝내 명확한 동기와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간신히 살아났으나 후유증은 심각했다. 퇴원 후 엄항섭 집에서 요양하던 백범은 어느 날 돌연 구토가 나면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 방사선 진단 결과 심장 부근에 박혀 있던 총알이 혈관을 타고 오른쪽 갈비뼈 옆에 앉아 있었다. 담당 의사는 "그냥 두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총알의 혈관 압박으로 다리 마비 증세가 왔으나 작은 혈관이 확장되면 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생명은 구했으나 대신 총격 후유증으로 그는 수전증을 얻었다. '총알체'라고도 불리는 백범 특유의 서체인 '떨림체'도 이 덕분에 태어났다.

현상금 200억과 냉면, 그리고 처녀 뱃사공

상해 시절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거사 후 백범은 일본 경찰과 헌병의 검거 대상 1호로 떠올랐다. 일경들은 임시정부가 위치한 상해의 프랑스 조계 곳곳에서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이고 동포들에게 무차별 검문 검색과 체포를 자행했다.

임시정부에 남아 있다가는 일경에 체포되는 것이 명약관화해지자 백범은 안공근·엄항섭·김철과 함께 당시 상해 YMCA 간사였던 피치 박사 집으로 피신했다. 피치 박사는 쾌적한 2층 전체를 백범 일행에게 내주고 식사 등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피치 박사 댁에서 백범은 이봉창·윤봉길 두 의사의 거사 배후가 자신임을 밝히는 영문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성명서 발표 후 백범에게 걸린 현상금은 무려 60만 원. 지금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으며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00만 달러에 달한다.

상상하기도 힘든 거금이기에 일본인 등 다국적 현상금 사냥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아 나섰다. 동포들은 신고만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범의 도피 생활을 도왔다.

고마운 마음에서 그는 위험하지만 동포들의 경조사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한 번은 '박대장'이라 불린 전차 검표원의 청첩을 받고 그의 집을 방문했다. 인사만 하고





3 김구의 피신을 도와준 주애보
4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의 피신을 도와준 저보성

부엌에 선 채 냉면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우고 나오자마자 일경들이 들이닥쳐 아궁이까지 뒤지며 백범의 행방을 추적했다. 잠시만 지체했더라면 체포를 면하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냉면이 아니라 뜨거운 국수였다면 식혀 가며 먹느라 잡혔을 것이다. 잔칫집 메뉴가 가른 그와 민족의 운명이었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된 생활을 이어가던 중 피치 박사 집에서의 전화 통화를 빌미로 은신처가 들통났다. 중국·프랑스·러시아 등 다국적 정탐꾼들이 기웃대고 언제 일경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백범은 옷가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피치 부인과 부부인 양 위장하고 자동차로 긴급히 피신한다.

상해를 벗어난 백범은 일제의 추적을 피해 가흥으로 피신, 지역 명망가 저보성이 마련해준 은신처에서 지냈다.

그는 완벽한 위장을 위해 장진구(張震球) 혹은 장진(張震)이란 가명을 쓰며 광동인 행세를 했으나 그마저 탄로 날 지경이 되자 도피 겸, 유람 겸 자주 이용했던 처녀 뱃사공 주애보의 배에서 아예 기거하며 숨어 지냈다.

주애보와의 인연은 남경 시절까지 이어진다. 백범이 남경에 숨어 지낸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제가 암살단을 파견하자 백범은 보다 완벽한 은신을 위해 가흥의 주애보를 남경으로 불러 부부로 위장한 채 산다. 호구 조사 나오면 백범은 반벙어리 광동인 행세를 하고 주애보가 대신 설명하며 곤경을 타개했다.

"살려고 산 것이 아니라 살아져서 산 것"

백범의 삶은 몇 편의 영화로도 온전히 담기 어려울 만큼 극적인 순간의 연속이다. 생사 여부,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민족 독립과 조국 통일이라는 대의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평생의 지기'처럼 따라 다녔다.

"나는 생명을 홍모(鴻毛)같이 봅니다. 날개 터럭같이 가벼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일을 당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천리」 1948년 9월호, 파인 김동환과의 대담.

백범은 칠십 평생을 회고하며 "살려고 산 것이 아니라 살아져서 산 것이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 이 몸이 필경은 죽어져서 죽게 되었다"고 정리했다. 수많은 위기에서도 백범이 민족의 기둥으로 운명처럼 살아남은 것은 역사의 필연이 아니었을까.